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세상

연말정산 좀 더 받을 수 없나?
"노후자금"은 언제 다 모으지?
근데 수수료는 꼭 내야 되나?

「이 많은 질문에 단 하나의 답
IBK기업은행 IRP!」



연 최대 115만 5천원 세액공제,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무료!

세액공제와 수수료 걱정을 한 방에
IBK기업은행 IRP

[i-ONE 뱅크]
IRP 가입하기

수수료 무료
i-ONE Bank 앱에서 가입 시 퇴직연금 수수료 무료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7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로 최대 115만 5천원까지 절세 가능

노후자금 마련
개인 맞춤 포트폴리오 설정으로 안정적으로 노후자금 마련 가능

디폴트 옵션 도입
DC/IRP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을 시 사전 지정 방법으로 퇴직연금 운용

비대면(i-ONE Bank, 인터넷뱅킹)을 통한 IRP 가입 시 운용 · 자산관리수수료에 한함(단, 펀드 보수 별도 발생가능)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2-4236호(2022.08.19) [유효기간 : 2023.08.18]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여성시대

양희은·서경석입니다

9 | 2022 September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송현동지점 거래고객
㈜오토크로바 이관민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논산지점 거래고객
㈜우리면 이주현 대표

IBK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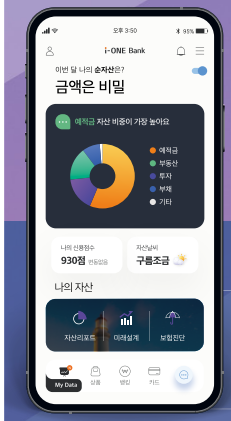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IBK기업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i-ONE 자산관리

당신이 원하던 자산관리 그 이상
i-ONE Bank 앱에서 경험해 보세요!





요즘 직장인들의 자산관리 i-ONE 자산관리

통합자산서비스
전 금융권 자산 통합 조회
자산 분석 리포트 제공

생활금융서비스
내 차 팔기 서비스
모바일 쿠폰 마켓

직장인특화서비스
신용등급·커리어관리
정부 지원금 찾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2473호(2022.05.11) 유효기간(2023.05.10)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 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 기업은행은 금품 ·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contents 2022년 9월호



04 **여성시대 특집**
나무 사랑 꽃 사랑 손그림 대잔치



17 **이달의 편지**
'2층 버스 적응하기' 외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오토크로바 이관민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우리면 이주현 대표

80 **나에게 쓰는 편지**
'스무 살 도윤아' 외

112 **서경석의 스튜디오에서**
17년간 준비했기에 가능했던
빛나는 공연 : TAK SHOW 후기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2년 9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서경석 **프로듀서** 박혜화, 김동현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Heyhoney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2022 여성시대 특집

나무 사랑 꽃 사랑 손그림 대잔치

초록별 지구를 사랑하는 여성시대 가족들의
손그림 잔치가 열렸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꽃과 나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화폭에 펼쳐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전국에서 모인 총 200여 작품 속에서
20편의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들의 마음에도 꽃이 피었어요 | 고윤아 (초6)

우리들의 작은 실천으로 되살아난 꽃과 나무들을
보고 새들의 마음에도 예쁜 꽃들이 피었습니다. 그
림 그릴 때가 가장 행복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봉선화 물들이던 시절 | 백수희

요즘에는 봉선화와 봉선화 물들이는 사람들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물든 손톱이 첫눈 오는 날까지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미신도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면 행여 손톱 끝에 조금 남아있는 꽃물이 달아날까 노심초사 손을 씻었던 기억이 나 괜시리 웃음이 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의 꽃 | 서명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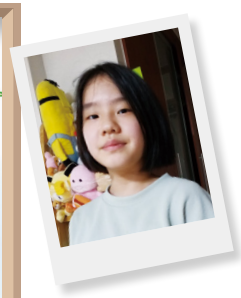
'여성살롱'에서 무궁화꽃이 일제 강점기에 당한 아픔을 알게 된 후 무심코 지나쳤던 무궁화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무궁화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자는 마음으로 그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참나무들 | 이은녕

올봄에 도토리를 키우게 됐습니다. 싹을 틔우고 자라는 잎의 모양을 보면서 '도토리나무'라 불리는 참나무가 200~250종 있고, 우리나라에는 상수리, 떡갈, 신갈, 졸참, 굴참, 갈참 6종류가 자생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참나무의 서로 다른 생김과 색을 구석구석 살피며 그려보았습니다.







그늘이 주는 모습 | 이해린 (중2)

나무가 주는 그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동백꽃과 동박새 | 김은하

겨울에 꽃을 피우는 동백꽃, 곤충 대신 새가 수정을 해주지요. 그래서 동박새는 동백꽃의 요정으로 불립니다.



지구, 우리가 지켜내용 | 김동욱 (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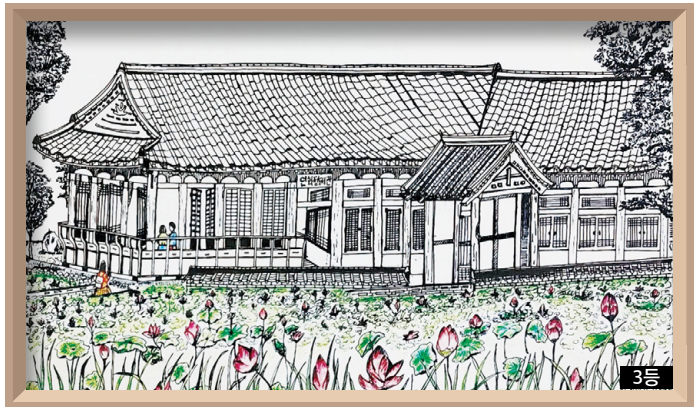
지구를 사랑하는 우리 노력과 희망이 용이 되어 지구를 지킨다.



바람바람바람 | 박효정

우리의 '바람'은 함께 공존하며 삶의 터전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지요. '자연'과 '인간'은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점이 많아요.





연꽃 | 박정숙

연꽃으로 유명한 전주 덕진 연못 한가운데에 최근 한옥 도서관이 개관됐는데 뷰가 정말 예뻐요. 나무 그늘에서 잠시 휴식하며 여유를 느끼다 그렸습니다.





북극곰아 우리가 널 지켜 줄게 | 김이안 & 이지연

아이와 함께 부안 바다에 다녀왔습니다. 바다는 아름답지만 쓰레기도 많고 버려진 유리 조각도 많더군요. 깨지고 닳아서 보석처럼 떨어져 있던 '씨글라스'를 주워 와서 아이와 함께 그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초록색은 나뭇잎~ 하늘색은 구름으로요~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고 훼손하지 않는다면 조금이나마 북극곰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텃밭에서 직접 키운 해바라기 | 최순금

순천만 국가정원 꽃씨약국에는 취향과 성격에 맞게 꽃씨를 처방해주는 꽃씨 약사님이 계세요. 저에게는 성격이 밝고 노랗고 따뜻한 느낌이 해바라기와 비슷할 것 같다고 처방해주셨습니다. 평소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좋아하기도 해서 텃밭 농사를 시작하면서 처방받은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더니 꽃이 예쁘게 피었답니다. 그 기분을 물감으로 표현해보았습니다.





나무 안의 지구 | 강나율(초4)

사람들이 지구를 괴롭고 아프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구 속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지구를 안아줬어요. 저는 나무 안에 있는 지구를 손에 받쳐주었죠. 나무 혼자 지구를 들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제가 나무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숨 쉬는 생명들 | 조은별

태교하며 갤럭시 탭으로 그려 보았어요. 꽃과 나비, 산과 물. 자연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예쁜 날개를 펼치는 나비들과 흐르는 물을 그려보았습니다. 꽃은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백합이에요.



희망 사항 | 이권택

공직생활 40여 년을 마치고 시골에 한옥을 지어 전원생활을 하며 취미생활로 우드버닝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요. 매화같이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죄를 짓지 말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모란처럼 적절한 노후 준비,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의 부가 필요하다는 제 희망 사항을 박에 그렸습니다.



우리 손으로 함께 | 이소연

매일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텀블러, 장바구니, 포장 용기를 들고 다니며 일회용품을 최소화하려는 이소연입니다. 점점 사라지는 멸종위기 동물들, 우리 주변의 강, 늪지 등 자연을 우리 손으로 지키자는 의지가 담긴 작품입니다. 우리 손이 자연을 훼손하기보다 지키고 공존하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어쩌면… | 문유리

어쩌면 우리가 자연의 보살핌을 받고 있지는 않을까요? 상쾌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 시원한 그늘, 향긋한 꽃냄새.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셀 수 없이 무수하니까요! 우리가 자연을 애정하는 것 이상으로 자연도 우리를 애정합니다! 나무에 물을 주며 잘 자라기를 바라는 아이의 모습과 이를 위에서 지켜보며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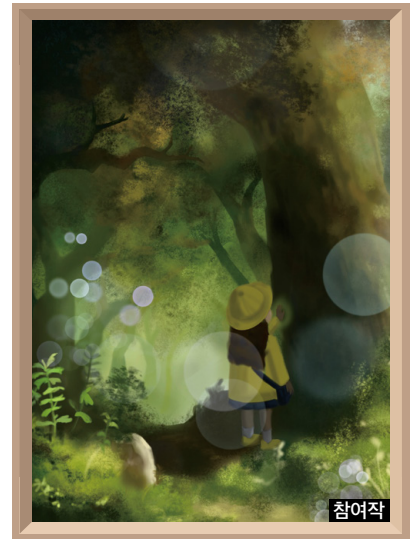
푸름이와 친구들 | 김가현 & 김화정

이 그림은 김가현(중3) 조카와 김화정 이모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1) 외로운 아이 푸름이는 사람들의 발에 밟힌 억새와 가지가 꺾여서 버려진 어린나무 그리고 쓸모없다고 자신을 느끼는 보라괭이밥을 만나게 됩니다. 2) 푸름이는 작은 손수레로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옵니다. 3) 푸름이는 친구들을 돌봐주고 책도 함께 읽고 음악도 들으며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4) 오랜 시간이 흐르고, 푸름이는 어린나무가 사과나무였다는 걸 알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혀서 상처받았던 억새가 사람들 사이에서 스타가 되고, 또 괭이밥은 고양이들의 의사가 되는 걸 지켜보면서 푸름이 자신도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희망이 큰 행복으로 | 김소담

목마른 작은 새싹에 물을 뿌려주며 도움을 주는 것은 훗날 작은 생명이 큰 나무로 자라게 해줄 것이며 또 다른 사람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치유받는 나무 | 김은채

한 여자아이가 나무에 손을 가져다 대어 나무를 위로해주는 모습입니다.

85개의 추억으로 핀 한여름의 매화 | 곽순희

85세 노모께서 이틀간 색연필로 마음의 매화꽃을 피워내셨습니다. 엄마는 한여름 매화에서 무엇을 추억하셨을는지요. 투병 중이신 엄마를 대신해서 접수합니다. 엄마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응원과 기도를 보내요〉

[이정자] 철원에서 훈련 받고 있는 아들 의중이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의중아, 벌써 2주째 연락이 없네. 의중아 훈련 잘 받고 있는 거지? 사랑해 아들~.

[최인혁] 우리 큰딸 예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수능을 봅니다. 오늘도 졸린 눈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독서실로 향한 우리 예진! 우리 예진이와 이 땅의 모든 고3과 수험생을 응원합니다!



[1325] 더운 여름에 택배 일하는 우리 남편~ 남편을 위해 기도해요. 마스크 줄 쪽만 하얗고 새카맣게 타버린 울 남편. "많이 더웠지? 힘들었지?" 하고 물으면 늘 웃는 얼굴로 밝게 웃어주는 우리 남편. 우리 남편 앞날이 밝은 햇살 같길 기도합니다.

[0541] 우리 엄마 김막동 씨! 지금 중환자실에서 병마로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김지연] 주말 부부입니다. 우리 남편은 포항에 있답니다. 구슬땀 흘리고 있을 울 남편, 최수종 닮아서 '일명 포항 수종'. "남편~ 담배랑 술 좀 적당히 하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문자 좀 보내고! 응? 참 곧 내 생일인데 다른 건 됐고 돈다발로 알았지? 건강히 잘 있다 만나."



[1052]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 가을에 수확할 멜론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수확 전에 비 피해로 과실이 열과 될까 걱정입니다. 별 탈 없이 수확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4313] 서울에서 옷 공장을 작게 하고 있는 길연아!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제발 비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옷 먼지 속에 있어도 장사가 잘되면 좋다고 했던 네 기억이 나네. 제발 피해 없이 여성시대 들으며 무사히 있기를 기도한다.



화요일 '사랑탐구생활' 시간에 도착한 문자입니다.

이달의 편지



일러스트 | **조신애**

18 2층 버스 적응하기
22 커피 드릴까요?
25 교양 없는 사돈
28 잃어버린 미소를 찾아서
32 공짜 우주여행
35 어느 날 갑자기
38 꽃집 사장의 부탁
44 꿈속의 밥
47 월간 여성시대 영원하라
49 우리들의 놀 궁리
51 어머니와 아빠
55 소중한 인연
60 '기억의 방'

Letter 01

2층 버스 적응하기

김기현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버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 10년 차입니다. 최근 2층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서 작은 변화에 많은 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었고, 2015년 경기도는 2층 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2017년에 처음 2층 버스가 들어왔고 제가 근무하는 하남~판교 노선에도 7월 1일부로 3대가 투입 되었습니다.

7월 1일 5시 30분 우리 노선의 첫 시작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차가 낯설어서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만나는 출근 손님들이 탑승하시면서 "와~ 2층 버스네요?" 어린아이 같은

표정으로 기뻐하며 아침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타셨는데 "이게 2층 버스요? 생전 처음 타보네!" 그래서 제가 "네, 4억 5천만 원짜리 버스에요. 오늘 수지맞으셨네요" 말씀드렸더니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으시더군요.

젊은 승객들은 2층 앞자리에 서로 먼저 앉으려고 뛰어 올라가다시피 했습니다. 판교에 가서 회차 지점에 거의 다다랐는데 다른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이 2층 버스가 오니까 당연히 자기가 타던 노선인 줄 알고 손을 들고 탑승하며 카드를 태그 했는데 혹시나 해서 행선지를 물었더니 역시나 잘못 탑승한 것이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대기 중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봐서 한순간에 동물원 원숭이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꼬마는 잡아끄는 엄마와 힘겨루기하면서 손에 든 아이스크림이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넋을 잃고 쳐다보는데 이미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2층 버스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등굣길 학생도 뛰어와서 사진을 찍고 버스를 뒤로한 채 등교해야 하는 아쉬움이 얼굴에 흘러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이집이 끝날 시간이면 어린 자녀를 데리고 몇 정거장이라도 2층 버스를 태워 주려고 나오는 어머님도 계시고 금요일 늦은 밤이면 야경을 보며 데이트를 즐기려는 젊은 친구들이 탑승하기도 합니다.

버스 도착 정보 앱을 보면 2층 버스는 2층이라고 표기가 되어 식별되니 이왕 타는 거 2층 버스의 위치를 확인하고 시간에 맞추어 탑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상버스를 3년 정도 운행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부담은 없었는데 저상버스는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밟는 대로 잘 나갑니다. 그런데 2층 버스는 액셀러레이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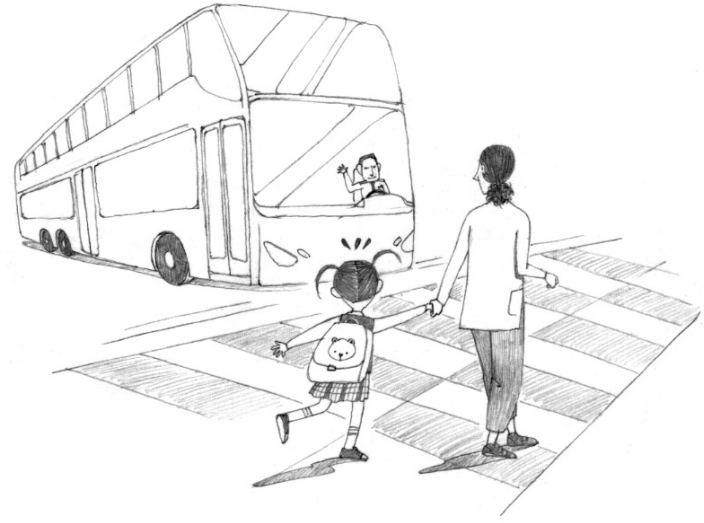
밟으면 차가 울컥거리고 안 나가 살짝 지그시 누르면 10km, 조금 굴러가면 20km 탄력을 받아야 잘 달리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승객을 태우고 넘어가던 교차로를 넘지 못하고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2층에 올라간 승객들이 의자에 앉는 것을 운전석에서 모니터로 확인하고 출발하다 보니 앞차는 점점 멀어지고 뒤차는 점점 붙게 되었습니다. 2층에 올라간 승객들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마치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탄 어린아이처럼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한데 제 속은 타들어 가기만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안전거리 유지는 필수인데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 차로 변경하면서 끼어든 승용차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이퍼가 작동되어 난리가 났습니다. 광역버스의 비상등 레버가 있었던 자리에는 와이퍼를 켜는 레버가 있어서 실수가 빚어진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식은땀이 나는지 손님들 볼까봐 부끄러웠습니다. 초보운전도 아니고 차가 바뀌었다고 이런 실수를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으로 사람의 습관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층 버스를 함께 시작한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똑같은 실수를 다들 한 것을 보고 서로 면허증 반납하라고 말하며 한바탕 웃을 수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고속도로 정체가 심하게 되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표정이 매우 어둡고 지칠 대로 지친 표정들인데 2층 버스가 도착하니 짜증 내는 승객 한 분도 없이 마치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기다리다가 차례가 와서 올라타는 것처럼 즐겁고 벅찬 기대감이 묻어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다 보니 이제는 저도 차에 적응되고 승객들도 신속



하게 의자에 앉으려는 노력을 보여주셔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에 2층 버스가 뭐라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동으로 마음으로 정을 주고받고 신뢰를 주고받으며 제 인생의 행복 노트는 또 한 장의 사연으로 채워졌습니다.

전국 여성시대 애청자 여러분! 2층 버스 탈 기회가 생기신다면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눈에 보이는 의자에 먼저 앉고 차량 운행 중 정차하고 있을 때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시면 기사님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층 버스의 가치를 논한다면 버스 관련 사고의 60~70%는 정류장 진출입과 승객이 버스를 승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2층 버스는 급출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안전을 우선 확보했다는 겁니다.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며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더 친절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도 2층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Letter 02

커피 드릴까요?

정다운 |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제 나이 마흔일곱 살입니다. 이십 대에 처음으로 입사한 회사를 십 년 정도 다니다 아이 낳고 그만두고, 현재 이십여 년 만에 다시 작은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는 이 시대의 워킹맘이에요.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작은 일이 저의 추억을 소환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오늘 회사에 20대 사원이 첫 출근 전에 인사를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인사하며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했더니 20대 직원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이라도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순간, 정수기가 있는데 왜?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은 첫날이고 인사하러 온 날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얼음 가득 넣어서 웃으며 갖다주었습니다(물론 다음부터는 그럴 일 없고 본인이 알아서 마셔야겠지요).

제가 갓 스무 살 넘겼을 때 금융권에 취업했습니다. 그때 제 이름은 '여사원' 아니면 이름 뒤에 꼭 '양'자가 따라붙던 시절이었습니다. 커피 심부름이야 당연한 거였고 담배 심부름도 하던 때였죠.

지점장님 손님이 오시면 손님 커피 갖다 드리는 일도 막내 신입이었던 제 몫이었는데 하루는 지점장님의 아주 큰 손, 손님이 오셨어요. 여느 때와 같이 저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커피 드릴까요?" 물었더니 그 손님께서 커피는 마시고 왔다고 물을 한잔 달라고 하셨는데 철없던 그 시절의 저는 손님께 아주 당연하게 "물은 저기 정수기에서 직접 떠드시면 됩니다"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1도 없었고 엄청 당당했는데 황당해하던 그 손님의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가 있나?' 하는 표정이었달까요. 아무튼 엄청나게 어이없어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의 왕 선임 언니가 나타나서 그 손님께 죄송하다며 직접 예쁜 잔에 물을 갖다 드리고 그분께 뭐라고 뭐라고 설명한 후 저를 탕비실로 불러서 아주 눈물이 찔끔 나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20대 시절 그때의 저는 혼자 무슨 혁명가처럼 사회의 부조리에 반항하던 시기였습니다. 커피 타는 게 싫다고 결국 회사가 커피 자판기를 사들이게 했고, 담배 심부름이 싫어서 울고불고 싸우다 대리가 직접 사다 피우게 만들었으며 회식 가서 여직원들에게 추근대는 상사들과도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찍혀서 서울에서 지방 점포로 발령이 났던 슬픈 추억도 있고요.

지금은 나이 먹어서 작은 회사에 재입사하다 보니 저는 경단녀이고 나이 많은 저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입사할 때 제가 온갖 잡일을 하는 걸로 이미 얘기가 된 터라(아, 그렇다고 제 자신을 낮추고



눈치 보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른 20대 직원들 업무에 힘쓰라고 제가 솔선수범해서 청소도 하고 커피도 타고 손님 접대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제가 손님께 "커피 드릴까요?" 물으면 백이면 백 다들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시네요. 사회 초년생 때는 커피 타는 거에 목숨 걸었던 절대 하면 안 되고 절대 지면 안 되는 투쟁이었는데 지금 이 나이 되어서 돌아보니 웃음이 나요. 왜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생각했는지. 지금은 아주 편하게 편하게 '내가 먼저 한다'는 마음으로 커피를 드립니다. 물론 제 자식들이 나중에 취직했을 땐 절대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오랜만에 신입사원을 보니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나서 웃으며 글 남깁니다.

Letter 03

교양 없는 사돈

박정운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여성시대를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빙그레 미소가 지어집니다. 친누나처럼 정겨운 양희은 님! 고향 친구 같은 서경석 님! 늘 듣지만 사연으로는 처음 뵙겠습니다.

조금은 창피하지만 저는 한순간 교양 없고 예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인정하기 싫었지만 집사람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교양이 없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예의가 없어!"

할 말이 없습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게 되는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큰딸이 결혼을 하다 보니 이젠 사돈댁의 심기까지 신경을 써야 할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해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사돈댁과는 교류도 부족했습니다. 한차례 상견례와 스몰 예식 때 뵌 것이 전부입니다. 사돈댁은 경기 소

재 아파트에 살다가 5년 전쯤 충청도 바닷가에 목조주택을 짓고 사진작가와 조수(?)로서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다.

얼마 전 사돈댁으로부터 해산물 선물을 받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성격상 직업상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엄청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서 조언받아 믿음이 가는 마트에서 육류선물세트를 주문했습니다. 배달까지 해줄 것으로 믿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돈댁 사시는 곳이 장거리이고 고속버스도 안 다니는 시골이다 보니 당일 배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찌합니까? 생고기인데 제가 직접 배달하기로 했습니다.

사돈댁은 어려운 곳이니 집사람은 저에게 옷을 단정히 입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 30분 전 '잠시 방문해도 되겠느냐?'고 의견을 여쭙고 혹시 두 분이 부재중이면 읍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돈아가씨한테 맡기라 하더군요.

약 2시간을 달려 읍 소재지에 도착하여 예의상 맨손으로 갈 수 없어 근처 마트에서 귤과 두루마리 휴지를 산 후 사돈댁 방문을 서둘렀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져 오니 그러지 않아도 급한 성격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 어려운 사돈 사이이기에 점심을 차리기도 어렵고 점심을 먹기도 어려운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빨리 전달하고 재빨리 도망가자!' 마음먹었습니다.

잊고 싶은 그 사건은 아내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방문 전 전화를 드려야 한다!'는 사돈 사이의 '교양'은 가출 된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지도로 확인된 그 집 문을 직업상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 집배원처럼 당연한 듯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사돈어른이 나오셨습니다.

"누? 누구세요?"

상견례와 결혼식, 단 두 차례만 만났고 그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기에 사돈임을 서로 알아본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한참을 쳐다보다가 저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저… 저어… 미리 연락 없이 와서 죄송합니다. 별이 아빠입니다. 이것을 드리려고요."

그제야 사돈어른도 갑자기 쳐들어온 사돈을 보고 당황하셔서 "아… 예… 잠시 기다려 주시면…." 사돈어른께서 문을 닫고 들어가셨고 사부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방 치우는 소리, 옷 갈아입으라는 소리. 저는 난처한 모습으로 밖에서 기다리고 한 10분인가 20분인가 지나서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사돈댁에서 모과차 한잔을 마셨나? 입만 벌리고 목구멍에 한 번에 부어 버렸나?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집안에서는 급하게 거실 정리를 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사부인은 흐트러진 머리를 벙거지로 덮고 있었습니다.

'아, 망했다 망했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한테 혼날 생각에 사춘기 때도 안 해 본 '잠수'라는 걸 타고 싶었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기가 막혀 했습니다.

"사돈이 얼마나 어려운 사이인데 거기가 어디라고 말도 없이 쳐들어가? 내일모레면 환갑인 사람이 교양 없게…."

그 사건 이후, 그러니까 올 2월입니다. 저는 그동안 쌓아온 교양(?) 있는 가장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아내의 케어 대상 집안의 요주의 대상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인생 선배이신 누님, 친구 같은 경석 씨 그리고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 저 어찌해야 하나요?

Letter 04

잃어버린 미소를 찾아서

박문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내가 근무하는 건축 현장 사무실에는 여러 업체 사람이 같이 근무한다. 그중 감리단장님이 종종 내 옆에 오셔서 툭툭 하시는 말씀.

"왜 이렇게 일만 해? 웃지도 않고 인상 쓰면서. 무슨 재미로 살아? 하나도 재미가 없는 사람 같아."

그런 말을 들으면 '내 얼굴에서 미소가 다 사라진 걸까?' 싶어진다. 삶에 찌들어 살고 있지만 그래도 미소는 유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은연중에 내 현실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니 서글퍼진다. 대학교 다닐 때는 동아리 여학생들한테 "오빠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찌푸린 얼굴로만 보이는 걸까?

화장실에 가서 내 얼굴을 보았다. 이마에는 지렁이 몇 마리가 지나간 것처럼 주름 길이 나 있고 초롱초롱해야 할 눈은 노안으로 빛이

희미해져 있고 얼굴은 검버섯에 푸석푸석하기까지 하다. 2~3년 전만 해도 현장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단 차이가 있어도 조심해서 다녀야 한다. 이제 내 몸도 가꿔야 하고 조금 여유를 가질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 나에게는 여유가 없다.

아침 5시 25분에 일어나 세수하고, 5시 50분에 집에서 출발, 현장에 6시 40분에 도착하면 일과가 시작된다. 보통 저녁 6시 정도에 퇴근하여 7시 10분에서 20분 정도에 집에 도착한다.

이때부터 연장전이 시작된다. 남들은 퇴근하고 나면 휴식 시간을 갖는데 나는 휴식 가질 여유도 없이 연장전을 치러야 한다. 연장전의 주인공은 우리 큰아들. 큰아들은 내가 집에 도착하면 매우 반긴다. 큰아들은 자동차 타는 것을 좋아한다. 자동차를 탈 수 있다는 희망감에 나를 반기는지 아니면 아빠가 좋아서 반기는지는 알 수 없다. 올해 17살, 키 172cm에 몸무게 95kg. 덩치 큰 고등학교 1학년. 겉으로 보기엔 장군감인데 아직 말을 못 하는 1급 발달장애아다.

저녁 먹을 때 큰아들은 내 옆에서 휴대폰으로 만화영화를 보면서 내가 먹는 반찬과 밥을 쳐다본다. 빨리 먹으라는 신호다. 고기반찬이 있을 때 먹으라고 주면 간혹 받아먹기도 한다. 내가 TV를 켜면 큰아들은 리모컨을 찾아 얼른 TV를 꺼버리거나 만화가 나오는 채널이나 어린이용 동영상을 틀어달라고 한다. 큰아들은 리모컨 전원 버튼만 알지 작동 방법을 모른다. TV 앞에서 화면을 터치하면서 틀어달라고만 한다. 큰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TV를 꺼버리고 휴대폰을 가져온다. 나는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고 다시 건네준다.

나는 큰아들과 입씨름하면서 밥을 겨우겨우 먹는다. 밥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큰아들은 국그릇부터 시작해서 반찬 그릇을 하나씩 싱크대로 가져간다. 이제 큰아들은 양말을 꺼내 신는다. 밖으로 나가자

는 신호다. 아내는 과일을 가져와서 과일 먹고 나가자며 달랜다. 큰아들은 자꾸 과일 그릇을 치우려 하고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 큰아들을 더는 잡아두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얼른 옷을 입는다. 설거지하려던 아내도 얼른 옷을 입는다. 덩치가 커진 큰아들을 이제 혼자 보기는 버겁다. 차가 멈췄을 때 갑자기 달려 나가거나 쉬가 마렵다고 할 때는 운전대를 잡은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항시 아내가 큰아들 옆에 동승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큰아들은 내 얼굴을 잡아당기면서 자기 볼을 가져다 댄다. 뽀뽀해달라는 뜻이다. 두세 번 큰아들 얼굴에 뽀뽀해준다. 큰아들을 태우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 공원에 잠깐 주차한다. 아내와 내가 잠시 허리를 펴고 몸 좀 풀려고 하는데 큰아들은 우리를 자꾸 자동차로 끌어당긴다. 운동도 시키고 산책도 시킬 겸 일부러 도망가기도 하는데 큰아들이 따라오다가 다른 곳으로 가거나 다칠까봐 우리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일부러 잡혀준다.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면 기분이 좋아진 큰아들은 목욕을 한다. 이때가 나의 휴식 시간. 잠깐 TV를 볼 수도 있고 둘째와 대화할 짬도 생긴다. 큰아들이 욕실에서 나와 먹을 것을 찾는다. 생라면을 간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빵을 먹기도 하고 캔디도 먹고 라면을 끓여 달라고 하고. 아내와 나는 먹을 것을 챙겨 주고 뒤처리하느라 녹초가 된다. 큰아들은 안방 거실 주방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전등불도 껐다 켰다 정신을 쏙 빼놓는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만화영화를 보다가 잠이 든다. 밤 11시 전에 자면 그래도 연장전을 잘 버텼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아내는 잠시 음악을 듣고 나는 TV를 조금 보고 싶지만 내일을 위해 억지로 잠을 청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격증 시험공부도 하고



싶고 건강을 위해 수영도 하고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여가를 즐기고 싶은데 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사치인 것 같다. 큰아들이 더 어렸을 때 모든 것을 이루었어야 했는데 혹은 시간을 더 쪼개야 하는데 큰아들 핑계를 대면서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여유가 없어져 내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는 것 같다. 내 나이 지천명(知天命), 하늘의 뜻을 안다는 나이인데 하늘의 뜻은 무엇일까? 큰아들은 분명 나와 아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하느님이 선물로 보냈을 것이다.

"하느님! 하늘의 선물인 큰아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아내와 제가 여유와 웃음을 잃지 않도록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 안배를 부탁드립니다."

Letter 05

공짜 우주여행

이향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누리호 큐브위성에 대한 뉴스가 오르내리면서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남편의 약속이 떠올랐어요. 35년 전 이야기인데도 진지했던 남편의 태도며 말투, 눈빛까지도 생생하네요.

남편과 저는 대학 때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소개팅으로 맺어진 부부 인연이지만 남편은 소개팅 대상자로 저는 여자 쪽 소개팅 주선자로 만났어요. 우리 집 문간방에서 자취하던 고등학생, 성격 밝은 민이가 가끔 나와 마주치면 우스갯소리를 했지요.

"누나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형이 있는데 한 번 만나 봐요."

늘 농담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날은 친구가 카니발 파트너가 없다고 한 말이 떠올라 "내 친구 소개해줘도 되니?"라고 물었고, 그렇게 성사된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친구를 소개하고 나오면서 문간방 자취생을 흘겨보며 말했죠.

"저런 해골바가지를 나한테 소개해준다는 거였어?"

나중에 알았지만 남편은 180cm 키에 58kg도 안 되는 몸무게, 그야말로 말라비틀어진 모습이었죠. 저의 이상형은 '호랑이 선생님'과 '수사반장'에 출연한 듬직한 조경환 배우였거든요. 내 남자친구나 배우자는 무조건 조경환 배우처럼 풍요로운 몸매이길 바랐습니다.

어쨌거나 내가 소개받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고 친구랑 잘되길 바랐는데 며칠 후 해골바가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이건 또 뭔 경우?' 친구에게 소개팅남이 애프터를 청하지 않았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싶어 만남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가끔 연락해서는 만나자고 했고 거듭되는 전화상의 거절보다는 내가 얼마나 해골바가지 타입을 싫어하는지 알려주려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그때 봤던 해골바가지는 맞는데 눈에서 '별빛'이 나오는 해골바가지인 거예요. 처음 느껴보는 그 별빛에 끌려 해골바가지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은 항공우주공학 석사 논문을 준비하는 중이었지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논문 타이핑도 해주면서 정을 쌓다가 남편이 청혼했지요.

"너, 나랑 결혼하면 나중에 우주여행 공짜로 할 수 있어. 미래에 우주공학도들은 공적을 인정받아서 그렇게 될 거야. 나랑 우주여행 공짜로 할래?"

푸하하! 얼마나 멋진 청혼인지. 그땐 멋지다고 생각했고 결혼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남들 밥 먹듯이 드나드는 제주 여행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그 10년 동안은 그렇게 멋지게 들렸던 우주여행이란 말이 남편을 공격하는 조롱거리로 쓰였죠.



"이 뻥쟁이야! 우주여행? 제주도라도 데리고 가봐."

남편은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플랜트 설계 일을 하게 되었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느라 별빛이 쏟아지던 눈은 언제나 피곤에 지친 모습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우주여행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공적을 인정받을 만한 우주공학도 역할도 하지 못했고 우주여행 갈 만큼 부유하거나 건강하지도 못하니 남편은 영원한 뻥쟁이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누리호 큐브위성 소식을 접하면서 그동안 잊고 있던 추억이 떠올라 남편에게 또 한 번 뻥쟁이라고 놀려봅니다. 다만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이 뻥쟁이야! 우주여행? 제주도라도 데리고 가봐"가 아니라 "여보, 뻥쟁이라도 좋으니 별빛 쏟아지는 눈을 가진 해골바가지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Letter 06

어느 날 갑자기

임세빈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지난 일요일 서산에 종친회가 있어 참석했다가 경인선 전철 1호선 중동역에 들러 친구들을 만나고 밤 9시쯤 귀가하는 길이었다.

중동역 게이트에 들어서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눈을 허공에 두고 허둥지둥 헤매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집에 모시고 있는 치매 걸린 장모님이 떠올랐다. 장모님이 집을 나가시는 바람에 찾아 헤맨 일이 여러 번이라 '저분도 혹시 집 가는 길을 잃어버렸나?' 싶고 남의 일 같지 않았다. 할아버지한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는지 여쭈니 중얼중얼 뭐라고 계속 되뇌시는데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 또박또박 말씀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부~개"라고 하시는 것 같아 "부개역 가시느냐?" 하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마침 내가 부개동에 살아서 "할아버지, 부개역에

서는 집을 찾아가실 수 있어요?" 하고 물으니 할아버지가 또 고개를 끄덕끄덕.

일단 모시고 인천행 전철을 탔다. 부개역에 내려 화장실에 가면서 입구에서 잠깐 기다리시라 했더니 굳이 따라 들어오셨다. "소변 보실 거냐?"고 여쭈니 고개를 가로저으면서도 내 옆에 바짝 붙어 떠나시지 않았다.

혼미한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해야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다시 자세히 여쭤보았다. 집이 부개역 남부에서 멀지 않은 곳임을 어렵게 알아내고 할아버지의 귀소본능을 기대하며 할아버지 뒤에 서니 할아버지는 역 계단을 내려와 바로 부평 방향으로 걸어가신다. 나도 옆에 붙어서 천천히 따라가며 물었다.

"누구랑 같이 나오셨어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없어졌어."

"아드님은 집에 있어요?"

"없어."

"그럼 할머니하고 두 분이 사세요?"

"응."

순간 '혹시 말로만 듣던 길거리 고려장? 괜히 모셔다드리고 험한 모습 보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복잡하게 머리에 맴돌았다.

한 500여 미터 갔을까? 할아버지 발걸음이 빨라지더니 한 빌라를 가리키며 표정이 환해지셨다.

할아버지를 따라 계단을 올라 302호 현관문 앞에 다다랐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 계신 분의 표정이 과연 어떨지 걱정이 앞섰다.

일단 할아버지를 내 뒤에 서게 해서 안 보이게 한 다음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누구냐고 묻는 남자 소리에 이어 문이 열리고 건장한 40대 후반의 남성이 나왔다.

"혹시 할아버지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순간 안에서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 어디 있느냐"고 눈이 등잔만 해져서 뛰어나오셨다.

아, 다행이다. 우려하던 상황이 아닌 진짜 잃어버리신 상황. 할아버지를 내 앞으로 오시게 하니 환호성이 일었다. 그렇지 않아도 실종신고하고 멀리서 사는 아들까지 달려와 마음 졸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차란다. 중동역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했다고 하니 부개역에 내려드렸는데 어떻게 중동역까지 가셨는지 의아해했다.

사연을 들으니 할아버지는 20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부자연스럽지만 집을 잃은 적은 한 번도 없단다.

그날도 두 분이 의정부 어디를 다녀오다가 부평시장에 점 찍어놓은 할아버지 모자를 사다 드리려고 5시쯤 할아버지를 부개역에 내려드리면서 "먼저 집에 가 있으시라" 하고 부평시장에 가서 모자를 사 왔는데 집에 할아버지가 없어서 놀랐다는 것이다.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저도 94세 장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그 심정 잘 압니다."

나는 감격스러운 가족 상봉을 뿌듯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할머니와 아드님의 환송을 받으며 할아버지 댁을 나섰다.

잠시라도 이상한 상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다니 나는 내 마음이 부끄러워졌다.

Letter 07

꽃집 사장의 부탁

김동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저는 대구에서 분갈이 전문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41세 꽃집 총각입니다.

장사는 손님이 물건을 팔아줘야 할 수 있으니 그래서 하는 말이 있지요. "손님은 왕이다!" 그러하기에 항상 손님에게 감사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손님은 정말 왕 대접을 받으려 하고 지나치게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해서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식물과 꽃을 파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손님의 30%는 까다로운 분들 같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매우 까다로운 손님들, 소위 진상손님을 유형별로 나눠보았습니다.

1. 결정장애 손님

"사장님, 집 창틀에서 키울 건데 적당한 사이즈로 안 죽는 이쁜 나

무 추천해주세요."

"손님, 우선 매장 한번 둘러보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키우는 방법이랑 알려 드릴게요."

"제가 식물을 모르고 결정을 못 해서요. 사장님이 골라주세요."

"그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 식물은 물도 자주…."

"싫어요. 전에 키워 봤어요."

"이건 어떠세요. 잎도 크고 시원해 보이고…."

"잎이 너무 커요. 저는 잎이 작고 풍성한 거면 좋겠는데…."

"이건 해피트리라고 하는데…."

"키가 너무 커요. 키가 큰 나무는 풍수지리학으로 봤을 때…."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그래도 싫어요."

"이건 팬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뻐요? 난 별론데…."

이건 징그럽다, 이건 색이 안 예쁘다, 저건 잎이 너무 뾰족하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어렵게 어렵게 결정한 식물과 심을 화분까지 고르고 막 심으려는 찰라!

"사장님, 식물 고르기 너무 힘드네요. 제 마음대로 결정 못하겠어요. 다음에 남편이랑 와서 고를게요."

그러고는 가버리는 손님, 정말 곤란합니다.

2. 화가 많은 손님

가게에 들어올 때부터 말과 행동에 화가 나 있는 손님이 있습니다. 보통 "어서 오세요~"하고 인사하면 "안녕하세요"라고 하거나 눈인사, 묵례로 답하기 마련인데 화가 많은 손님은 저의 인사를 무시하고 들

어옵니다.

이런 손님은 쌈닭처럼 목을 곧추세우고 팔짱을 꽉 낀 채 눈을 한쪽으로 흘기며 말투부터가 톡톡 쏩니다. 이런 손님과는 시비에 말리지 말고 친절하게 보내는 게 좋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하면 화풀이 대상이 되어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3. '답정너'인 손님도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정답을 맞혀야 하는 경우죠.

"사장님, 이거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이뻐요?"

"손님 취향에 맞게 손님이 이쁜 걸로 고르세요."

"그래도 전문가니까 평균적으로 어떤 게 이쁘고 잘 나가는지 알잖아요. 골라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이 풍성하고 색감도 이쁘고 더 싱싱해 보이네요. 오른쪽 추천합니다."

"오른쪽이 이뻐요? 난 왼쪽이 이쁜데! 사장님 나랑 안 맞는다. 왼쪽으로 심어 주세요."

어차피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심을 거면서 왜 물어보는지?

4. 호구조사에 성희롱하는 손님

꽃집에 왔으면 꽃을 사 가면 되는데 제가 마음에 드시는지 호구조사 하는 손님도 있어요. 이름, 나이, 고향, 부모·형제 관계, 결혼 여부 등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하기 꺼려지거나 민망한 질문도 하고 기분 나빠지는 말까지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손님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 결혼했어요?"

"아니요, 아직 미혼입니다."

"결혼을 왜 안 해요?"

"때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어렵게 자라서 혼자 지내는 게 편해요. 그래서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허우대 멀쩡하게 생겨, 팔뚝도 굵고 허벅지도 튼튼하고 인기도 많겠는데 어디 하자가 있나? 왜 결혼을 안 하려 할까? 하하하~ 언니! 사장님 총각인데 결혼 생각이 없대. 아이고~ 얼굴이 아깝다. 사장님은 아줌마들 조심해야겠어. 하하하~."

하고는 여러 명이 자기들끼리 박장대소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심까지 느껴져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 소리 해주고 싶지만 손님이기에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5. 무조건 깎으려고 하는 손님

할인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치게 많이 할인받으려는 손님이 있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3천 원이네요? 나 2천 원에 줘! 이거는 5천 원짜리야? 그럼 3천 원에 주고. 이건 만 원이나 하네? 왜 이렇게 비싸? 7천 원에 주고…."

"손님, 그렇게는 안 돼요. 모두 합산해서 10% 할인해 드릴게요."

"안되긴 왜 안 돼? 이걸 다 받으려고? 내가 이 집 단골인데? 내가 1년에 서너 번도 더 와. 그리고 내가 먼 데서 오는데 기름값이라도 빼줘야지. 저번에도 와서 2만 원 넘게 샀는데 깎아주지도 않고 꼴랑 다육이 하나 주더만! 깎아줘. 다른 꽃집도 다 그렇게 팔아!"

무조건 할인해 달라는 손님은 상대하기 힘들고 성질이 납니다.

6. 황당한 질문을 하는 손님

"사장님, 집에 식물이 계속 죽는데 왜 그럴까요?"

"식물이 왜 죽을까요? 원인을 판단하셔야죠. 물이 부족해서 그런지, 물이 많아서 과습인지, 추워서 냉해를 입었는지, 햇빛이 너무 강하거나 더워서 그런지? 이런 걸 파악해서 손님이 관리해줘야 합니다."

"나는 물도 잘 주고 햇빛 좋은 데서 키우는데 왜 그런지 몰라서 왔어요."

"무슨 식물이에요?"

"이름은 모르겠고 잎이 녹색이고 뾰족하게 길고 잎이 대여섯 개 달린 거 있잖아요?"

"팔손이요?"

"아니 이름은 모르겠고 잎이 녹색이고 뾰족하게 길고 동글동글하고 잎이 다섯 개 달리고 공기정화도 한다는 거. 그게 계속 잎이 말라요."

"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사진이나 이름을 알아야 설명해 드립니다."

"아니 꽃집 사장이 그런 것도 몰라요? 답답하네."

"저희 매장에 똑같은 식물 없나요?"

"어! 저기 있네, 저거!"

"홍콩야자네요. 물은 얼마마다 주셨나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줬지. 한 달에 한 번 줄 때도 있고 생각나면 주는 거지."

"손님, 물을 그렇게 주면 안 되고요. 햇빛 양, 통풍, 계절, 환경 등에 따라 규칙적으로 화분 위 겉흙에 물이 말랐는지 확인하고 줘야 합니다. 식물에 따라 온도나 햇빛, 추위에 약한 식물은 그 환경에 맞는 위치에서 키워야 하고요."

"아냐, 사장 말대로 하면 식물 다 죽어. 내가 식물을 얼마나 잘 키우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식물이 죽었다면서요. 그러니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장 말대로 해 봤는데 그래도 죽어!"

이런 손님은 왜 오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스무고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본인 말만 하는 황당한 분들이죠.

그 외에 막무가내인 손님도 있습니다. 제가 가격을 제 가격보다 낮게 잘못 말했을 때 잘못 말했으니 그 가격으로 달라고 우기는 손님, 다른 손님이 예약한 식물이라 '판매 완료'라고 적어두었는데 굳이 그게 마음에 든다고 막무가내로 달라는 손님도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손님, 시간 때우러 왔는지 전화 통화만 40분 넘게 하고 "다음에 올게요" 하고 나가는 손님, 사간 지 1년도 넘은 식물이 죽었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

제가 꽃집 알바 14년 하고 창업해서 사장된 지 7년, 합이 20년 넘게 손님을 대했는데 힘든 손님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금전적 손실을 주고 영업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꽃집 사장이 부탁드립니다.

Letter 08

꿈속의 밥

이현정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6로

40대 중반을 달리고 있는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식구들과 저녁 먹고 설거지 마치고 나면 운동화 신고 밖으로 나갑니다. 야외 마스크 쓰기도 해제되고 나니 운동하기 딱 좋은 밤입니다. 딱히 운동이라기보다는 사색에 잠기는 시간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혼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걷고 있자니 신혼 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남편 직장을 따라 평택 안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택이라는 곳은 지리 시간에나 잠깐 들었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매일 늦게 오고 출장도 잦은 터라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볼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바로 임신이 되는 바람에 입덧으로 요리도 할 수 없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사다 줄 사람도 없는 외로운 생활을 이어갔어요.

보다 못한 시어머님이 시댁이 있는 부산으로 오라셨어요. 혼자 열

차 타고 가다가 중간지점인 친정 김천에 들렀습니다. 시골에서 가장 바쁜 여름, 친정 부모님은 새벽부터 일어나 뭔가 먹을 것을 챙기고 임신한 저를 깨워 일하러 가자고 하셨어요. 힘든 일은 안 시킨다며 그냥 그늘에 앉아 자두 박스 무게만 달면 된다고 하시기에 저도 흔쾌히 따라나섰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빈 자두 박스가 아니라 엄마가 5kg씩 담은 자두 박스를 들어 저울에 달고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몇 번 하다 보니 아랫배가 뭉쳐서 서 있을 수도 없더라고요. 엄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조금 쉬었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하라고 하셨어요. 배가 뭉치니 겁도 나고 임신한 딸에게 그렇게 일을 시키는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오죽하면 임신한 딸한테까지 일을 시키실까 부모님이 안쓰러웠습니다. 일손은 부족하고 당일 자두를 납품해야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마음이 급하신 탓이었죠.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메뉴는 잔치국수. 더운 날씨에 입맛이 없으니 대충 국수를 말아 드시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집에서 삶아온 허연 국수면을 그냥 맹물에 양념장만 풀어서 김치랑 드시더라고요. 그것도 젓가락은 거들기만 할 뿐 그냥 마시듯이 드시는데 코가 시큰해지며 목이 메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5분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가 숟가락 가득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밥을 떠서 그 위에 윤기가 좔좔 흐르는 양념 고기를 얹어서 제 입으로 가져다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걸 받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앙~ 하고 먹으려고 하다가 잠이 깨버렸습니다. 그 꿈은 친정에 있는 동안 매일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고 시댁이 있는 부산으로 가는 아침, 엄마가 저를 붙잡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친정에서 일 시켰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그때는 야속하게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웃픈 이야기네요.

부산역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마중 나오셨는데 바로 마트로 가서는 먹고 싶은 걸 다 고르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부터 어머님은 요리 실력을 발휘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끼니때마다 다른 반찬과 국, 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시댁에서는 밤에 꿈도 꾸지 않고 정말 편하게 잘 잤다는 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배 속의 아기가 뭘 자꾸 달라고 하는데 친정에서는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아 그런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그 얘기를 친정엄마한테 웃으며 했더니 엄마는 웃으면서도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 너무 급해서 누가 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지금 생각해도 정말 웃픈 이야기입니다.

Letter 09

월간 여성시대 영원하라

김진철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저는 하루하루를 무지하게 바쁘게 생활하는 65세 남성 애청자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독서나 매일 읽는 신문을 정독하기보다는 큰 타이틀만 보고 생활합니다.

여성시대 애청자 여러분, 6년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혹시 생각나세요? 저는 우연히 2016년 7월 발행된 월간 여성시대 책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일산 외곽 제2자유로 옆 심학산이 가까운 동네라서 IBK 기업은행이 없습니다. 매달 10일쯤 방송에서 "월간 여성시대가 나왔어요!" 친절히 안내하여 주셔도 시간 내서 시내로 가지 않는 한 책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은 꼭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지만 온종일 MBC 고정 팬으로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쉬운 마음 달래고 있답니다.

그런데 책장을 정리하다 6년이 지난 2016년 7월호 월간 여성시대

책을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현재 오늘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6년 전, 7월호 월간 여성시대에 사연이 실린 주인공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안부 물어보겠습니다.

부산 자유도매시장에서 풍물을 하며 신명 나게 사는 조자야 씨, 흥나는 인생 천직을 찾은 최윤진 씨, 조카 아들 키우며 행복한 구인순 씨, 특히 이 글을 읽으며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세탁소를 열고 손님 울렁증을 겪고 계신다는 애청자는 울렁증 잘 넘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애기 키우는 윤성욱 씨,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잘 지내라 기원하는 애청자, 무임 승차한 고양이를 구한 택시 기사님, 인생에 고마운 형님을 만난 이종삼 씨, 먼 길 돌아 다시 행복을 찾은 부부 사연을 보낸 허영미 씨, 자폐 아들을 잘 키우고 계신 애청자, 아버지께 뒤늦은 미안한 마음을 전한 애청자님, 또 가족을 찾는 절절한 사연, 여성시대 주부 나들이에서 만난 회원들로 새로운 기쁨을 누리고 사신다는 임옥선 씨, 손 상병의 예기치 못한 위문편지를 받은 분, 전기 요금 걱정하는 김수연 씨….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받고 잘 읽었습니다.

끝으로 응급실에서 세상 공부했다는 양희은 누님,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내용 중의 서경석 씨의 슬하(膝下)라는 말, 많이 들었지만 그 뜻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책은 기념으로 오래도록 간직하렵니다. 여성시대 파이팅! 월간 여성시대 파이팅!

[추신]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월간 여성시대 읽으세요. 똑똑해지고 교양이 넘쳐납니다.

Letter 10

우리들의 놀 궁리

김민지 | 경기도 하남시 산곡남로

하남에 12년째 살고 있는 아이 셋의 엄마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남의 대형쇼핑몰 바로 옆 아파트에 살다 첫째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계기로 조부모님이 살고 계신 좀 더 자연과 가까운 외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첫째 아이도 근처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지금은 2학년이 되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첫 번째 큰 행사인 여름방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학부모들을 보면 조기교육, 영어유치원, 수영, 태권도 등등 다양한 학원에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더군요. 저도 은근히 조바심이 났습니다. '여름방학은 한 달이니 뭐라도 더 시켜야 하지 않을까? 다들 다니는 영어 학원? 예체능이라면 역시 수영일까? 아이스링크에서 배우는 스케이트?' 고민이 되더군요.

건물 하나에도 온갖 학원들이 즐비했고 저의 마음은 고민으로 현

혹되어가던 중 아이와 함께 하교하는데 아이가 가방 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더니 "엄마, 이거 내가 키운 고추나무에서 따온 거야~" 하며 꽤 탐스러운 고추 8~9개를 주는 겁니다. "와~ 이렇게 잘 키웠어? 멋진데~" 하며 아이의 고추를 받아서 드는 제 손을 보며 그간 아이의 여름방학을 준비한답시고 여기저기 학원가를 검색해보던 제 손과 겹쳐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에 아이가 갓 따온 고추를 송송 썰어 넣어 먹으니 그 맛이 단연 최고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맞아. 나는 아이를 위해 자연 친화적인 학교에 진학시켰고 아이의 웃음과 즐거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흔들렸던 저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된장찌개를 먹으며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절기에 맞춰 다함께 모내기하고 감자를 수확하고 매실청을 담그고 직접 키운 자기만의 농작물을 따옵니다. 아이는 주말이 되면 늘 월요일을 고대합니다. 빨리 학교에 가고 싶다고요. 이유를 물으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놀고 싶고 자기가 키우는 달팽이가 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의 방학이 더 이상 인터넷 검색과 고민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고민을 합니다. 다가올 방학은 무얼 하고 놀아야 더 재미있을까? 어떻게 지내야 아이와 더 신나는 방학으로 추억할 수 있을까? 이 상상만으로도 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고민이 또 있을까요? 온갖 놀 궁리를 하며 오늘도 아이와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Letter 11

어머니와 아바

강세원 | 충북 충주시 남산길

몇 달 전 시댁에 갔다. 어머니께서는 텅 빈 눈빛으로 거실에 누워 계셨다.

"어머니, 식사는 잘 챙겨 드셨어요? 약도 꼬박꼬박 드시는 거죠?"

"응, 먹었어. 바쁜데 뭐 하러 왔어."

예고도 없이 찾아온 마음의 병으로 어머니는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않으셨다. 치료를 받고는 계시지만 차도가 없었다.

"으이그~ 배가 부르니까 그런 병이 생기지. 밭일을 온종일 해봐! 그런 병이 오다가도 도망갈걸. 쯧쯧쯧."

아버님은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사실보다 일손 하나를 잃어서 못마땅한 걸 숨기지 않으셨다. 그런 아버님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 우리 티브이나 볼까요? 어떤 게 좋으려나? 이거 엄청 재미있는 영화인데 같이 보실래요?"

마침 영화 채널에서 〈맘마미아〉를 하고 있었다. 영화관에서 감명 깊게 봤던 뮤지컬 영화. 의욕 없이 누워서 화면만 바라보시던 어머니도 아바 특유의 부드럽고 차분한 노래에 자세를 바로 하셨다. 그리고 흥얼흥얼 노래를 따라 하는 내게 조심스레 물으셨다.

"애미야, 너 아는 노래냐?"

"네~ 아바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인데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쓰일 정도로 유명해요."

"저 노래 제목이 뭐냐?"

"'I have a dream'이란 노래예요. '나는 꿈이 있다'라는 뜻이래요. 노래 참 좋죠?"

"응, 참 좋다."

어머니 얼굴에 은은한 미소가 머물렀다. 영화가 끝나자 어머니는 못내 아쉬우신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애미야, 아까 그 노래 내용이 궁금한데 네가 좀 알려줄 수 있니?"

"그럼요 잠시만요. 제가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내게는 꿈이 있고 부를 노래가 있어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가사도 참 좋구나. 이거 내가 두고 볼 수 있게 종이에 좀 적어줄래?"

한동안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어머니셨다. 작은 관심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겐 큰 변화이고 기적이었다. 나는 서둘러 정성스럽게 종이에 가사를 적어드렸고 어머니는 내가 건넨 종이를 무슨 귀한 보물 대하듯 조심조심 다루며 눈으로 쓸어내리셨다.

"어머니, 이 노래 어머니 휴대폰에 저장해서 들을 수도 있는데 담아드릴까요?"

"그래? 내 휴대폰에서도 들을 수 있어? 그래 주면 나야 고맙지."

그리고 며칠 후 안부 전화를 드렸을 때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어머니 목소리는 전보다 한결 편안하고 생기가 깃들어 있었다.

"어머니,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고와서 전화 잘못 건 줄 알았어요."

"너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쑥스러운 듯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서 즐거움이 묻어났다. 그리고 그 주말 내가 시댁에 들어섰을 땐 현관문 입구에서부터 아바의 노래가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머~ 어머니~ 이 노래 듣고 계셨어요?"

수줍은 소녀처럼 얼굴이 발그레해지신 어머니는 내게 가사 종이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이곤 이렇게 물으셨다.

"응, 근데 애미야. '내게는 꿈이 있고 부를 노래가 있어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줄 아니?"

아바의 노래가 어머니를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뜻밖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여기요! 근데 어머니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참에 이 노래 직접 불러보시면 어때요?"

어머니는 격하게 손사래를 치셨다.

"내가? 나 영어 못한다. 읽지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부르냐?"

"대신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목소리가 예쁘시잖아요. 어머니가 직접 노래 부르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우리 듀엣으로 같이 불러볼까요? 고부 듀엣~ 좋은데요?"

꽁꽁 갇혀있던 어머니 마음이 한 발짝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길잡

이가 되어 드리고 싶었고 완강히 거부하던 어머니도 결국 나의 간곡한 부탁을 마지못해 허락하셨다. 그날부터 나와 어머니의 노래 연습이 시작되었다. 어머니만큼 나도 팝송을 부르는 일은 미지의 영역.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끌어 올려 주말이면 시댁으로 출근해 어머니와 아바 노래를 듣고 또 들으며 연습했다. 멜로디가 느리고 정확한 발음의 노래라서 비교적 수월했고 처음엔 힘들어하던 어머니도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을 땐 거짓말 조금 보태서 아바에게 들려주고 싶을 만큼 실력이 향상되셨다.

"우리 어머니, 최고! 어머니~ 우리 이 노래 동영상으로 남겨요. 흔한 추억이 아니잖아요."

바로 거절하실 것을 대비해 어떤 말로 설득해야 하나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그러자. 내가 언제 우리 며느리랑 이런 걸 찍어보겠냐? 하자! 우리~."

어머니 마음에 속도가 붙었다. 나는 휴대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바로 동영상 버튼을 눌렀다. 비록 관객 하나 없는 콘서트였지만 우리가 가수였고 서로의 관객이었다. 세상 부럽지 않은 근사한 무대.

어머니는 이제 우울증 약을 드시지 않는다. 허기도 지고 밤이면 졸음도 밀려온다고 하셨다.

그리고 요즘 어머니는 아바의 다른 노래에 솔로로 도전 중이시다. 아바의 모든 노래를 연습해서 불러보는 게 새롭게 생긴 어머니의 꿈이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내게 고맙다고 하시지만 나는 어머님께 감사하다. 웃음을 되찾으셔서 삶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 가족 곁으로 건강하게 돌아와 주셔서 발걸음에 힘을 실어 빛나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계셔서….

Letter 12

소중한 인연

이동철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저 역시도 지난 30년 가까운 군 생활 동안 인연을 살려내기도 하고 그 인연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제 생에 첫 번째 소중한 인연을 맺은 것은 1999년 11월 11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수혜자분이 당시 22살 남자분이었다는 것뿐입니다.

1997년 여름, 부대에서 단체 헌혈을 마치고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홍보 교육을 받았고 건강한 신체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기증서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지금은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1996년 미 공사생도였던 '한국인 입양아 성덕바우만' 군

에게 우리나라 '서한국' 씨가 기증한 것이 비혈연 관계에서 처음 이루어진 조혈모세포 기증이라서 당시에는 사회적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이를 증명하듯 대대 전 장병이 홍보 교육에 동참하였으나 기증에 동의하고 서명한 인원은 7~8명 남짓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2번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고 결혼도 했습니다. 저 자신이 조혈모세포 기증에 동의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현실과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생활하던 1999년 4월 어느 날,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하는 백혈병 환우가 있다는 뜻밖의 전화였습니다. 그러면서 1주일 동안 생각해보고 기증을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최종 결심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997년 기증에 동의할 때는 결혼 전이어서 저 혼자의 결심으로 기증서에 서명했지만 전화를 받았을 때는 다음 달에 출산을 앞둔 만삭의 아내가 있어 아내의 동의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관련 내용을 얘기했고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아내는 저의 "꼭 하고 싶다"는 말에 별 무리 없이 승낙해주었습니다.

이후 협회를 통해 곧바로 정밀조직검사를 위한 추가 혈액 채취가 이뤄졌고 최종적으로 조직적합항원이 94% 이상 일치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5월 내로 기증 날짜를 잡겠다는 연락과 근무지로 협조공문도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군에서 그것도 간부가 처음으로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것이다 보니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고 그래서 근무지에서 상급 부대를 거쳐 육군본부까지 협조공문이 상신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군 의료법상에는 조혈모세포 기증이 장기 기증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게 되면 제가 현역복무부적합 조치 대상에 포함되어 전역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설득이 있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장기 기증과 달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혈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완전히 보충이 가능하다 하여 조혈모세포 기증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6개월이나 걸렸지만 이후 저의 사례로 군 의료법상에서 조혈모세포 기증은 장기 기증에서 제외되었으니 저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지연된 시간에 비해 실제 기증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기증일 2주와 1주 전에 기증 수술이 진행될 병원에 방문하여 기증 직후 저의 몸에 수혈을 위한 2번의 헌혈과 전신마취를 위한 사전 신체검사를 실시했고 기증 하루 전 저녁에 입원하여 다음 날 오전에 조혈모세포 채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몇 가지 채취 방법이 있지만 당시 조혈모세포 기증은 양쪽 골반뼈에서 약 1,500cc 정도를 채취하는 방법뿐이었으며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저는 약 3시간 만에 전신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기증 후 하루를 병원에서 휴식한 뒤 다음 날 오전에 퇴원했고, 그다음 날 근무지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일과를 소화했습니다. 약 1주일 정도 골반뼈 부위가 뻐근했던 것을 빼고는 기증 전과 달라진 신체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환우가 기증받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완치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 2001년 가을 어느 날, 협회 관계자로부터 기증받은 수혜자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저는 군 장병들의 조혈모세포 기증이 꾸준히 늘어나고, 국방일보에 미담 사례로 소개되는 것을 보며 흐뭇해할 뿐이었습니다.

또 몇 번의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고, 2008년 2월 어느 날 특별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말하길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에서 저의 연락처를 물어왔고 해당 기관에 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근무지를 여러 번 옮기고 연락처도 변경되면서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만을 가지고 행정관서를 통해 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직접 통화한 결과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관계자는 저와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7세의 여자아이가 일치한다며 이번에도 기증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최종 결심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꼭 기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1999년 기증 이후 매스컴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이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를 알고는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또 하려고 하냐며 반대했습니다.

저는 2~3일 아내를 설득했고 아내는 승낙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설득한 내용은 당시 6살이던 둘째 딸아이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딸아이가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상황에서 가족 중에는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하는 인원이 없어 비혈연 기증자를 찾고 있는데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으나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기증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어떨까?"

이후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을 통해 곧바로 정밀조직검사를 위한 추가 혈액 채취가 이뤄졌고 이번에는 조직적합항원이 97% 이상 일치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기증 날짜를 잡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3월에 3주간의 큰 훈련을 앞두고 있었고 주요 직위자로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했기에 훈련이 끝난 3월 말 이후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99년에는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도 기증을 잘 마무리했기에 그 정도의 시간은 충분할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혈모세포 기증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훈련을 나가 2주 차 훈련 도중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관계자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기증이 어렵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에 아무 말 없이 "네"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저의 두 번째 소중한 인연은 사라졌고 '바로 기증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후회 아닌 후회가 지금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과 인연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헌혈을 시작하여 최근까지 185회의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과 실천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인연을 맺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으로 말입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이제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헌혈에 동참하려 합니다.

끝으로 이제는 저도 나이가 있어 점점 가능성이 희박해지지만 만약 세 번째 소중한 만남과 인연이 찾아온다면 반드시 꼭 그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Letter 13

‘기억의 방’

김영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저는 수원에 사는 딸 셋의 엄마입니다. 제가 사는 수원에 지방자치 단체 기준, 세계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개인 명의로 된 ‘기억의 방’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억의 방’은 일본군 위안부로 평생 힘든 삶을 사시다 훨훨 나비가 되어 날아가신 ‘용담 안점순’ 할머니를 기억하고자 수원시민들이 힘을 합쳐 건립한 곳입니다.

‘기억의 방’ 입구에는 안점순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이 땅의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만든 ‘용담 안점순 기림비’가 세워져 있고 그 뒤로 조그마한 화단에는 평소 어르신이 좋아하셨던 용담꽃이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겨우내 숨을 죽이고 있다가 봄이 되니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났습니다. 매일 물을 주며 가꾸고 있는데 어제 처음으로 보랏빛 꽃송이를 봤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보랏빛 꽃들이 더 활짝 필 것입니다.

‘기억의 방’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면에 수원시민이 기증한 평화의 소녀상과 안점순 할머니의 초상이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슬픔과 고통스러운 삶을 정의와 평화의 디딤돌로 만들어 놓으신 할머니의 용기를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일본군 위안부로 피해를 보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입니다.

1992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으로 신고된 247명의 명패와 아직도 부끄러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는 분들은 이름 없는 빈 명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과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의 슬픈 삶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입니다.

뒤돌아서면 덩그러니 쌀 저울이 놓여있는데 무엇일까요? 방문객들도 “왜 기억의 공간에 쌀 저울이 있어요?” 질문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할머니의 슬픈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쌀자루처럼 저울에 무게가 재어진 후 1941년 꽃다운 14세의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겪게 했던 바로 그 저울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삶의 무게를 지금 잰다면 이 저울은 지금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저울에 올라서서 할머니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뿐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저울 왼쪽에는 할머니의 일대기가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고 그 위에 할머니께서 평소 말씀하셨던 “다시 여자로 태어나서 살아보고 싶어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저울 오른쪽에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라고 적혀 있는

하얀 상자가 있는데 아래 은색 버튼을 누르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남기신 희망 메시지가 나옵니다. 할머니들의 말씀은 당신들의 고통과 슬픔을 딛고 평화와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남기신 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평화로운 세상에 살아야 해요.〉

〈전쟁이 없어야 나 같은 피해자가 안 생긴다.〉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등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안점순 할머니의 살아생전 사용하셨던 유품을 전시한 공간이 있습니다.

'기억의 방'은 2018년 3월 30일 세상을 떠나신 용담 안점순 할머니를 추모하는 문화제에서 기억의 방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여 2021년 8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해야 합니다. 수원에 오실 때 잠깐 들려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더 바로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시관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방'에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바르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달의 손편지

고해성사

애청자 | 경기도 남양주시

좌를 지었습니다. 이제서야 뒤늦게 고백하게 된 것은 유년시절의 사진을 보다가 그때의 죄가 떠올라서 입니다. 기억하기론 6살 때 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우체 다닌 어름날, 친척 아주마 한분이 제 머리통보다 훨씬 큰 수박을 사들고 우리집에 오셨습니다. 전 자금도 친사의 모습을 연상하라고 하면 수박을 들고 들어오시는 친척 아주마를 떠올리곤 합니다.

어머니는 수박을 잘라서 가족들이 먹을 것은 떼 놓으시고 몇조각을 가져 오셨습니다. 두분은 잠시 말씀을 나누시더니 저에게 수박을 먹으면서 잠시 집에 있으라고 하시고는 외출을 하셨습니다.

저 혼자 집에 있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1건

달콤한 수박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금야금 수박을 먹던 저는 그만 불똥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음식이 생기면 밖에 있는 가족들 몫을 따로 빼놓고, 집에 들어오면 나눠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그 환상적인 맛에 취해 수박 한통을 다 먹는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숨이 살 정도로 호흡은 가쁘고 배는 남산만 해져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신 어머니는 제 배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셔서 옆집에 사시는 한약집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심각한 얼굴로 맥을 짚어 보시고는 제 배를 슬러 본 할아버지의 진단은 복수가 찼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배에 수박물이 산 것은 사실이니까요. 약을 조제할테니 무슨 약초 비슷한 것을 시장에 가서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밖에서 듣고 있는 형을 불러 시장으로 급히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을 지나도 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어머니께서는 시장으로 달려가셨고, 이내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셔서 한손에 그 약초 비슷한 물건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형 또한 한쪽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형은 그 물건이 팔지 않는다고 그 돈으로 튀김을 사 먹고 있었답니다.
동생은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튀김이 목으로 넘어갔나 봅니다. 결과는 무진장 얄은 모양이었습니다.
이제까였든 약은 다려졌고, 저는 푸른 배를 강탕 못해 방바닥에 누워 있기만 했었습니다. 그때 옆방에 세 들어 사시던 할아버지께서 사정 얘기를 들으시고는 저에게 뭘 먹었냐고 물어군요. 수박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한통을 다먹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오강을 가져오시더니 소변을 보라고 하시더군요. 한참을 오강과 씨름하던 중에 이내 똥물이 터지듯 쏟아져 내린 소변은 오강을 반 이상 채우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든을 채우고 멈춘 저의 소변으로 불룩하던 제 배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고 옆집 할머니는 낙담하여 무척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돌팔이라고 소문이 나면 동네 한약집의 생명은 끝이 나기 때문이었죠.
수박 한통을 다 먹은 종아리를 맞는 선에서 해결을 봤지만 문제는 옆집 할아버지였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진 후 할아버지를 찾는 손님은 줄어갔고, 급기야 문을 닫게 되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몇년 후 돌아가셨는데 병시레 있이 주무시듯 돌아가셔서 주변에서는 호상이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 항간에서는 돌팔이 한약집을 새롭게 낸 저를 칭찬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저때문에 옆집 할아버지께서 쫓겨나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후자는 저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 형의 발언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형의 아내께 할아버지의 일자리를 잃게 만든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부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시대 사진방



[2146] 이번 여름 비가 너무 자주 와서 일을 드문드문했습니다. 가을에는 일 좀 많이 하고 싶네요.



[1028] 스티커 있는 빵을 구하기 위해 7시에 일어나 초등 형아들 사이에 줄 서 있는 7살 울 아들 응원해주세요.



[0537] 딸기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나올 맛있는 딸기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3714] 연꽃 보면 기분 좋아져요. 우리 동네 시흥 연꽃테마파크입니다.



[7013] 이천에서 화각장을 만들고 있는 젊은 화각장인입니다.

오늘의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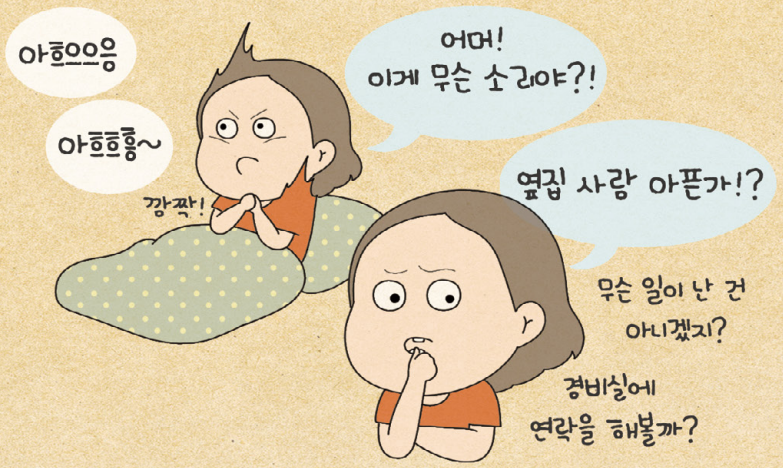
글/그림 2B

인천 남동구 논현로의
여성시대 가족 이주순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새벽 다섯시 반,
옆집에서 들리는 수상한 소리!





새벽녘 옆집에서 들리는 정체 모를 소리에
놀란 마음에 경비실로 호출을 했습니다.




아흐으으응
아흐흐흥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선 아직도
그 소리가 나고 있는데 말이지요!
꺼림칙한 마음에 옆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저희 집에서 자꾸
앓는 소리가 들려서요
네? 그럴 리가요
한 번 같이 가볼까요?
그렇게 옆집 분과 집에 들어오니
어머 진짜 들리네요?
이게 무슨 소리지?
어흐흐흥
아흐으응
그렇죠! 들리시죠!


...저기 혹시
선풍기 좀 꺼보실래요?
선풍 기요?!
네.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 수경재배 중인 고구마 잎이
선풍기 날개에 부딪혀
방새 어흐으으응 소리를 냈던 것이었습니다.
어흐으으응~
하으으으응~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저는 그렇게 혼비백산한 밤을 보냈고
옆집 사람은 한참을 눈물까지 흘리며 웃다 돌아갔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자동차에 꿈의 날개를 달다

IBK기업은행 송현동지점 거래고객
㈜오토크로바 이관민 대표

글 | **문수민**(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오토크로바는 현재 국내 도어바이저 점유율 1위 기업이다. 1세대 스모크 도어바이저와 2세대 크롬 도어바이저에 이어 최근 출시된 3세대 블랙다이아몬드 도어바이저는 디자인은 물론 기능성까지 업그레이드된 보석 같은 제품이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 모든 자동차에 날개를 달고 싶다는 오토크로바의 비상이 시작됐다.

오토크로바는 차량용 부품 및 액세서리 제조·판매 업체다. 흔히 선바이저라고 부르는 '차량용 도어바이저'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하여 보급에 힘써왔다.

도어바이저는 자동차 문 위쪽에 붙여 빗물이 들이치지 않도록 돕는 제품이다. 전 세계적으로 블랙 색상의 '스모크바이저'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국내의 자동차 바이저는 대부분 크롬으로 반짝거린다. 크롬바이저는 오토크로바가 개발한 스모크바이저에 크롬 도금을 한 제품이다. 쉽게 마모되지 않고 장식성도 뛰어나 현재 국내 점유율이 80% 가까이 될 만큼 국내 자동차용품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토크로바는 크롬선바이저를 생산할 때 크롬도금을 외주로 제조하는 업계 다른 회사와 달리, 최초 디자인 기획부터 금형가공, 사출성형, 크롬 도금까지 전 공정을 인하우스로 제조하고 있어 완성도가 뛰어나다.



최근 2~30년간 자동차의 디자인은 점점 고급스러워졌지만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 선진국의 선바이저 회사조차 지금까지 스모크바이저 시장에 머물고 있다. 오토크로바가 세계 시장에 출사표를 내던진 이유다. 오토크로바는 크롬바이저를 통해 2006년부터 해외 시장을 개척해 현재 2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지금은 회사 매출의 50%를 수출에서 창출하고 있을 정도로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악조건 속에서도 매출 하락 없이 약 80억 원의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오토크로바가 최근 또 다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크롬바이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블랙다이몬드 도어바이저'를 개발해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스모크바이저가 블랙 색상이고, 크롬바이저가 올크롬이라면, 블랙다이몬드 도어바이저는 자동차의 기본 몰딩 부분은 크롬이고 실제 빗물을 막아주는 부분은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어 도어바이저를 붙이더라도 자동차가 출시되었을 때와 디자인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

"차가 점점 고급화되고 디자인





이 세련되어지면서 도어바이저의 선호도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어바이저를 장착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차에 최대한 밀착되는 블랙다이아몬드 도어바이저를 개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자동차에 창문이 네 개다 보니 원래 바이저가 4피스였는데 자동차 윈도우 라인과의 일체성을 위해 세계 최초로 6피스 바이저를 개발하였습니다. 바이저를 6피스로 함으로써 디자인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윈드노이즈도 현저히 줄어든 것을 실험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오토크로바는 유통 단계를 줄여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가가기 위해 공식몰을 만들어 직접 판매하고 있다. 더불어 블랙다이아몬드 도어바이저 장착 전문 대리점 모집을 통해 판매 채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오토크로바가 품질과 원가 관리를 위해 아웃소싱을 주던 크롬도금을 직접 하기 위해 공장을 매입하면서 IBK기업은행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도금 라인을 증설하면서 또 한 번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오토크로바가 크게 성장하게 되어 은행 입장에서도 무척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오토크로바의 성장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겠습니다."

약 15년간 오토크로바와 함께 상생해온 IBK기업은행 송현동지점 구선민 지점장은 오토크로바의 더 큰 도약을 응원했다.

오토크로바의 도어바이저를 통해 세상의 모든 차가 행운의 날개를 달기 바라는 이관민 대표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IBK기업은행 송현동지점 구선민 지점장(왼쪽)과 ㈜오토크로바 이관민 대표

㈜오토크로바 이관민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시장을 개척하라.
2. 고객들의 만족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라.
3.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라.

㈜오토크로바
대 표 이관민
전 화 053-614-0090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334
홈페이지 www.autoclover.com

대(代)를 잇는 국수 장인

IBK기업은행 논산지점 거래고객

㈜우리면 이주현 대표

글 | **문수민**(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밀국수 전문 제조업체 ㈜우리면을 시작으로 쌀국수 전문 제조업체 ㈜정성면, 쌀을 가공해 쌀 즉석면을 제조하는 ㈜유창면까지 설립한 이주현 대표는 대를 잇는 국수 제조 기술자다. 최근에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밀국수에 이어 쌀국수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난과 국가의 쌀 소비 촉진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밀수입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이주현 대표의 행보가 기대된다.

우리면은 건면전문제조업체다. 소면, 중면, 쌀로 만든 소면, 메밀국수, 면반죽 등 시중에서 판매하는 모든 면류를 제조하고 있다.

1959년부터 시작된 가업을 이어받아 2006년 이주현 대표가 밀국수 전문 제조업체 ㈜우리면을 설립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국수 제조 기술을 익혀 온 이주현 대표는 독립을 하면서 기술 개발에 올인했다. 밀가루 면의 단점인 퍼지는 특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6개월이 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진했다.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 같은 환경에서도 매일 국수 건조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았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날씨만 보고도 국수 건조 정도를 체감으로 알



수 있다고 하니 그동안의 노력이 짐작된다.

"오랜기간 연구 끝에 '진공숙성면'을 개발하였습니다. 밀가루가 숙성되면 글루텐 작용으로 인해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쫄깃한 식감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특성을 이용해 개발한 진공숙성면은 시간이 지나도 퍼지지 않고 쫄깃해서 식당이나 학교 급식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국수를 주력으로 제조하던 이주현 대표는 2010년 무렵, 국가에서 시행하는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쌀 소비 촉진 운동을 계기로 ㈜정성면이라는 쌀국수 전문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쌀국수 개발에 뛰어들었다.

"많은 연구 개발 끝에 독창적인 기술개발을 이루어 제분 및 제분방법, 건조, 기계장치 등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밀국수는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 기술 수준이 많이 평준화되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차별화할 방법은 쌀을 제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2011년부터 10년 가까운 연구 끝에 절출면 방식의 쌀국수를 개발하였습니다."

국수를 만드는 방법에는 국수를





뽑아내는 압출면 방식과 시트를 만들어 칼날로 자르는 절출면 방식이 있는데 압출면과 달리 절출면은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 절출면 방식으로 쌀국수를 생산하는 업체는 정성면이 유일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주현 대표는 쌀을 이용한 즉석면을 생산하기 위해 2년 전 ㈜유창면을 설립하였다. 쌀국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쌀을 가공해 컵라면과 라면 등 쌀 즉석면을 만들면 가장 저렴하면서도 간편하고 건강한 한 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현재 연구개발을 모두 마치고 설비 단계에 있어 내년 9월 이후 시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연구 개발부터 설비까지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비용도 정말 많이 필요했어요. 특히 쌀국수 라인을 리뉴얼하고 연구개발 하는 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요, 많은 어려움으로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IBK기업은행에서 도움을 주셔서 지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IBK기업은행 논산지점 전영주 지점장은 "10년 전부터 100% 쌀로만 국수를 만들 방법을 연구·개발해 온 이주현 대표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밀수입이 어렵고 농림부에서 쌀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는 현 상황과 맞물려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앞으로는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판매망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국민들에게는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고 국가 정책적으로도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이주현 대표의 커다란 포부가 곧 이루어질 듯하다.





㈜우리면 이주현 대표(가운데)와 IBK기업은행 논산지점 직원들

㈜우리면 이주현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전통 방식의 장점은 취하고 새로움도 개척하라.
2. 장인정신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라.
3. 회사뿐 아니라 국가와 직원들의 이익도 함께 생각하라.

㈜우리면
대 표 이주현
전 화 041-832-5222
주 소 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602-32
홈페이지 https://dpnoodle.com

특집

나에게 쓰는 편지



일러스트 | **조신애**

81 스무 살 도윤아
83 내일 다시 만나요
87 교사 한동안 파이팅!
89 나의 마니또
92 빛에서 빛으로
95 26살의 내가 36살의 나에게
98 상인 일기
102 지영아, 더 행복해지자
105 그때 기억나?
107 어느덧 마흔
110 나를 사랑하며 살리라

나에게 쓰는 편지

스무 살 도윤아

권도윤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7월 16일 토요일에 2023 수능시험 대비 공부를 위해서 제가 살던 천안에서 서울 목동 학원가 근처로 왔습니다. 9평짜리 오피스텔을 얻어 이사 왔는데 엄마랑 떨어져 있어야 하니까 너무 슬프고 우울합니다. 날도 덥고 지치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데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겉으로 티는 내지 않지만 매일 매일 똑같은 일상에 요즘 싫증을 느끼는 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동안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거기서 '내가 나에게 쓰는 편지'를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밥 먹고 학원 다시 가기 전에 생각이 나서 이렇게 빠르게 글을 씁니다.

도윤아~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칭찬받으면 그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서 항상 잘하려고 애쓰

고 노력해 왔지.

그런데 고등학교 와서 주변 친구들을 보니 내가 너무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약간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잖아.

고2 때부터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저 친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잠식되어 성적이 조금씩 떨어졌고 그다음 해 수능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지.

다른 친구들은 모두 원하는 대학교 합격 통지를 받고 행복해할 때 너는 기숙 학원을 알아보기 위해 가족들과 전전긍긍 돌아다니며 학원을 찾고 어떻게 다시 살아야 하는지 설계를 받고 다시 또 수험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

화나고 창피한 순간도 많았고, 대학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보고 자괴감에 빠져서 슬펐던 기억도 있지. 그래도 나는 네가 그 순간순간에도 열심히 살아왔다는 사실을 너 자신이라도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년에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네가 상상해 오던 대학생활을 즐기면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현재를 잘 극복해서 우리 부모님 돈 헛되게 쓰인 것처럼 되게 하지 말자!

넌 한다면 다 할 수 있잖아.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서서 남은 수험 생활 이제 혼자지만 잘해 나가서 내년에 우리 학교 후배들에게 후일담을 알려주자! 너 그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잖아. 그러니 힘내. 파이팅!

이 편지가 라디오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응원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다시 학원에 가야 해서, 이만 다녀오겠습니다!

나에게 쓰는 편지

내일 다시 만나요

조미경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나에게 편지를 쓰려니 네가 걸어온 길에 있었던 커다란 어려움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겁네. 하지만 결국 네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굳게 믿어본다.

평범한 삶이 가장 어렵다는 걸 깨달은 건 18살의 겨울이었어. 고3 수능을 마치고 며칠 후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지. 중환자실에 보름간 누워 계시다가 마지막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떠나셨지. 엄마는 엄마 친구에게 쓰러지기 전날, 이제 아이들이 둘 다 대학생이 된다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대. 인생은 너무 얄궂은 거 같아. 엄마 나이 겨우 45살이셨어. 내가 올해 40인데 얼마나 아까운 나이인지 해마다 아니 달마다 아니 날마다 마음이 아려.

18살 이후로 참 외로웠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했어.

큰아이가 좀 유별나다고 느낀 건 언제부터였을까? 아기일 때는 많이 보채지도 않아 순하다고만 여겼는데 말이 좀 많이 늦되다 싶었어. 남자아이니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 동네 슈퍼에서도 잃어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아직 어리니깐 그럴 수도 있지 했어. 유난히 숫자를 좋아하는 것도 영특하게만 보였었어.

아이가 자폐라는 진단을 받고 평범한 삶이 멀어져 가는 걸 한 번 더 절감했어. 앞으로 순탄한 삶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이도 나도 말이야.

괜찮지는 않았어. 버스를 잘못 타기 일쑤고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고 길을 가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억울했어. 즐거움이란 걸 잊고 살던 시간이었지. 아이의 장애를 늦게 알아버린 내가 미워서 아이에게 미안해서…. 늦게 시작한 만큼 더 많이 가르치고 빨리 가르쳐야 할 것 같았어. 모든 신경을 큰아이에게만 쏟으며 일주일 내내 아이의 여러 가지 치료로 바빴지.

7살이 되니 학교 가서 적응할 것이 걱정되어 얼마나 전전긍긍 했었는지. 아이보다 더 긴장되었던 1학년. 행여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겨 전화가 오진 않을까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 역시나 3일 만에 전화하신 담임선생님은 아이의 특이한 점들을 이야기하며 이해하기 힘들어하셨지. 나는 아이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고 관련된 정보를 직접 손수 적고 복사해서 보내드리기도 했어. 매일 오늘은 잘하기를 선생님께 전화 오지 않기만을 기도했던 날들이었어.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도 학교에 점차 적응해 나갔어. 아직도 친구 사귀는 건 잘하지 못하고, 동생들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예전보단 큰 문제 없이 학교에 다니는 것에 감사해. 내가 큰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적어지고 센터 치료 수업도 줄어들어 갔어.

아~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싶을 때 딱 그 순간! 어느 날부터인지 손이 너무 아팠어. 집안일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닌데 주변에서는 아이가 셋이니 힘들어서 그런 거라 했지. 손이 퉁퉁 붓고 손가락 마디마다 통증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별 차도가 없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점점 힘들어졌어. 손에서 시작된 통증은 발로 어깨로 전신으로 번져갔지. 누구라도 붙잡고 살려 달라고 하고 싶었어.

친한 동네 언니가 자기 엄마가 다니는 병원을 소개해줬고 멀었지만 남편에게 부탁해 가보았어. 의사가 알려준 병은 이름도 낯설었어. 루푸스! "그게 뭐죠?" 의사에게 되물었지. 자가면역질환이었어. 내가 내 몸을 공격한다니? 믿을 수 없었어. 그저 건강한 체력으로 아이들을 씩씩하게 키우고 싶었던 그 바람마저 허락되지 않아 서러웠어.

아이 셋을 두고 입원할 수는 없어 우선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았어. 그나마 통증이 줄어 살만했지. 그 후에도 관절염으로 알레르기로 전신 근육통으로 병은 자꾸만 통증을 바꿔가며 나를 괴롭혔어. 좀 나아지다 또 심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지. 그게 벌써 3년째네. 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기분이지만 이 정도인 게 어디냐 자신을 위로해.

하지만 몸의 통증보다 무서운 건 우울감이었어. 통증이 심한 날에는 이대로 잠들어 일어나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 자신이 무서웠어. 몸이 아프니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졌어. 그런 날은 작고 작아져 그냥 점이 되어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 어디서 이런 극단적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건지 나도 놀랐어. 내 옆에 누워 잠든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 이렇게 나약하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던 내가 후회되고 다 미안해.

매일 눈뜨는 것이 가장 무섭고 힘들었어. 오늘만 잘 버티자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지. 그 하루를 버티게 한 건 매일 9시 5분이면 시작되는 '여성시대'였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진행자 두 분이 거기에 있다는 것, '내일 다시 만나요~'라는 희은 님의 마지막 인사는 내일을 약속할 힘이었기에 그 말을 곱씹으며 하루를 더 살아보자는 힘을 얻곤 했어. 내일도 함께해 줄 거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여성시대 여러 사연도 많은 응원이 되었어. 우울증을 친구처럼 생각한다는 사연, 루푸스로 아이를 갖는 대신 입양을 선택했다는 이야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이겨내고 있구나. 그 사연만으로도 힘을 주는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대단하게 생각되었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일터에 있는 분들, 병을 이겨내는 분들, 모두 너무 대단하다고 소리 내어 칭찬해 드리고 싶어. 특히 난치병, 희귀병을 가졌음에도 가족들의 힘으로 이겨낸 분들의 사연은 더욱 마음을 다잡게 해주었어. 모든 분에게 고마워서 나도 이렇게 용기를 내어 편지를 쓰고 있어.

몸이 회복되면서 우울감도 전보다는 나아졌어. 예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이만큼도 다행이라고 자신을 다독여본다. 그런데도 문득문득 마음이 털썩 내려앉고 삶에 자신이 없지만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미경아, 네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다시 한번 굳게 믿어보자.

나에게 쓰는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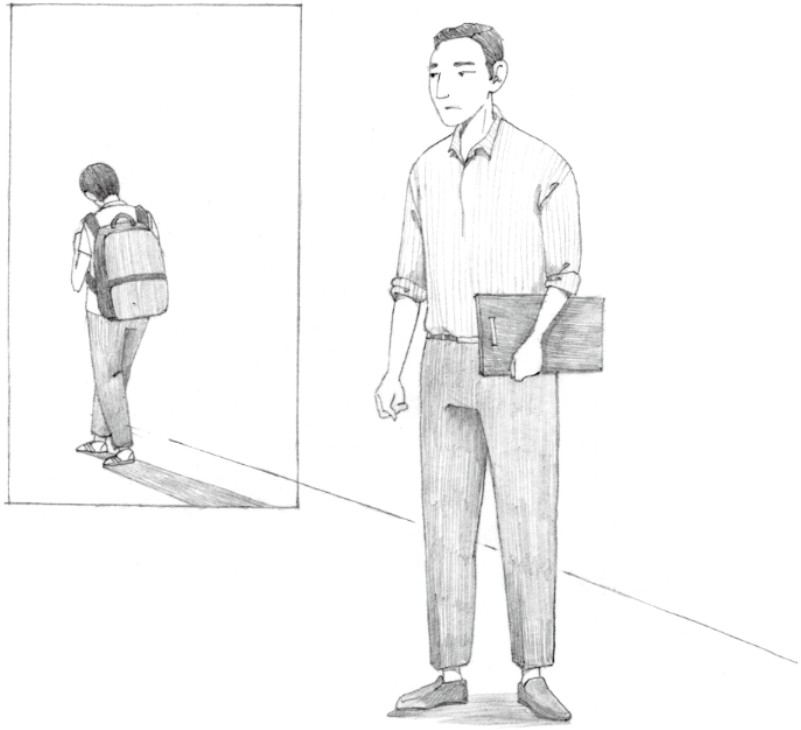
교사 한동안 파이팅!

한동안 | 세종시 남세종로

참 힘들었지? 올 초 계약제 교사 지원서류 40여 통 넣고도 매번 서류 통과를 못 해서 낙방의 연속이었던 너.

그러다 2월 말 학기 시작하기 10일 전에 지금의 학교로부터 전화 한 통 받고 얼마나 기뻤니. 1년 계약직 자리였지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지. 더욱이 2학년 담임이라는 책임 있는 자리를 맡게 돼서 정말 감사한 나날을 보냈잖아.

하지만 늘 그렇듯 쉽게 흘러가지만은 않지. 학기 시작되고 3월 말부터 예상치 못하게 학생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 신고로 이어져 많이 놀랐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이런저런 얘기 듣느라 3개월을 퇴근도 미룬 채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 결국 학생 한 명이 전학을 가면서 정리가 되긴 했지만 네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 자괴감에 많이 괴로웠을 것 같다.



사기업에 10년 다니다가 사직서를 내고 어릴 적 꿈 찾아온 교직. 나 정말 잘한 걸까? 괜히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고민의 밤을 수 없이 지새웠지만 그 끝에 내린 결론. 남아 있는 학생들의 소중한 학창 시절을 잘 지켜주자 굳게 다짐했지. 지금 네 자리는 너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야. 다시 한번 힘내자. 교사 한동안 파이팅!

나에게 쓰는 편지

나의 마니또

김진아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안녕? 나는 너의 마니또야.

지금부터 40년 전 너는 마니또를 정하는 제비뽑기에서 네가 너의 이름을 뽑았지. 너는 그날 자신을 뽑아 운이 없다 생각했지만 내가 나를 마니또로 뽑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흔하지 않은 일이기에 그때부터 나는 너를 평생 지켜주기로 약속했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넌 정말 병약했지. 몸이 아파 한 달을 쉰 적도 있고 기말고사를 중간고사로 대체한 적도 있었지. 나는 그때마다 몹시 속상했단다. 공부에 소질이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잘 먹고 잘 쉬면 하고 싶은 공부 맘껏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희망의 속삭임을 들려주는 일뿐이었어.

너는 정신력 하나는 정말 좋더라. 몸이 힘든데도 강한 의지로 이겨내더니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장학금을 받아 없는 살림에 보탬도 되

었지. 넌 손 많이 가지 않는 괜찮은 아이였어.

그렇게 4년을 공부하고 너의 반쪽을 찾아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 잘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죽느냐 사느냐 할 만큼 큰 위기가 찾아왔지. 많이 아파 입원했는데 "큰 병에 걸렸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지. 내 나이 스물여덟, 이제 겨우 말귀 알아듣는 아이는 어떻게 하고 피어보지 못한 내 찬란한 생은 어찌하느냐고 너는 울부짖었어.

너의 마니또인 나는 너를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신께 기도했어. 제발 살려만 달라고 살아만 있으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기적이 찾아왔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여린 불씨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었고 이전과 다른 삶은 덤이 되어 펼쳐졌지.

그 후 너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집안일도 직장 일도 악착같이 하며 쉴 틈이 없었지. 그러는 동안 네 인생은 너 자신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과 사회적인 지위로 가득 차서 몸은 지치고 마음은 가을 낙엽처럼 메말라 갔어.

나는 그런 네가 못마땅했어. 돌이 던져진 호수처럼 너는 출렁거리고 예민하고 불안해했어. 너를 지켜 주고 싶었지만 너는 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자꾸 멀어지려고만 했지.

세월은 무심히 흘러 너는 어느새 50대 중반. 시에서처럼 나도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님같이 생긴 꽃'이 된 것 같아.

요즘은 어떠니? 너는 집안일을 하거나 운동할 때, 음식을 먹거나 사람을 만날 때, 전보다 많이 느려졌어. 천천히 생각하고 너그럽게 판단하고 여유롭게 베풀고 많이 기다리려고 애쓰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보기 좋아. 머릿속도 마음도 몸도 편해 보여. 시간과 사람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워졌어.

요즘 네가 힘들 때나 외로울 때 감동하고 뿌듯하고 행복할 때 그때마다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 늘 그랬듯 나는 가까운 곳에서 항상 너를 기다릴 거야. 그리고 이렇게 속삭일게.

'넌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야. 자세히 봐야 예쁘다는 풀꽃 같고, 같은 시를 여러 번 읽어도 감동하는 순수를 가졌어. 그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의 영원한 수호천사가 작은 별처럼 너의 삶을 비춰줄게. 40년 전 내 이름을 뽑는 바람에 마니또와 만나게 된 어색함은 이제 위로와 격려가 되어 너의 삶을 채워줄 거야. 살아내느라 수고했어. 살아주어 고마워.'

나에게 쓰는 편지

빚에서 빛으로

강동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원길

동주야, 고물가에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많이 힘들지? 그래도 빚 독촉에 시달렸던 지난날들과는 비교도 안 될 거야.

죽도록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스물다섯 살. 난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어 절대로. 사느라 누적된 생활 빚에 학자금 대출, 거기다 현대 의학으로는 풀리지 않던 가족들의 아픔을 낫게 해보겠다고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했던 미신 행위의 결과로 생긴 빚까지.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제2·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연 29퍼센트에 달했던 이자를 갚느라 원금이 1억 2천만 원을 훌쩍 넘겼던 그때. 난 거기서 헤어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생을 끝내는 게 최선일지도 모른다는 정말이지 어리석은 생각도 했었어. 동시에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나를 짓눌러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지.

다행히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신용회복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고

원금은 장기 분할 납부로 높은 금리의 이자는 조금 탕감을 받을 수 있었어. 매일같이 걸려 오던 빚 독촉 전화가 뚝 멈췄던 것이 가장 살 것 같았다.

얼마 되지 않는 급여 생활자이다 보니 그 많았던 빚을 다 갚기까지는 19년에 가까운 세월이 걸렸고 50대에 들어선 지금도 나는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잘못 걸려 온 납부 안내 전화에도 심장이 엄청 빠르게 세게 뛰어서 아플 지경이지만 동주야, 힘든 역경을 딛고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빚에 허덕이느라 시들어버린 내 청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만큼 시간과 돈의 소중함도 뼈저리게 배웠지. 지금도 여전히 잘 사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노력이란 걸 해봤자 뭐 되겠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도 과연 내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들고 확신도 없지만 그래도 느리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 내 자신과 주변을 상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자.

갚아야 할 빚 때문에 가고 싶었던 대학원이 사치처럼 느껴졌지만 넌 결국 늦은 나이에도 입학 면접을 봤고,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가는 와중에도 그토록 원하던 학교에 합격해 다닐 수 있었잖아. 만감이 교차해서 꺽꺽거리며 울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졸업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네.

25년이 넘는 세월을 무더위엔 선풍기, 추위엔 옷과 이불만 의지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남에게 신세 지지 않고 보답하며 살기 위해서는 빵빵한 에어컨, 보일러는 꿈도 못 꾸고 아끼는 것만이 늘 최선이라 여기며 살겠지만….

동주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하루하루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갈 거란 사실을 의심하지 말자. 찾아올지 말지도 모르는 행운을 마냥 기



다리지 말고 절실히 보낸 오늘 나의 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나의 미래가 될 거라고 위안 삼으며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쓰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자. 그렇게 인생의 남은 페이지를 채워가 보자!

동주야, 그동안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지난 삶을 떠올리며 버텨내자! 네가 '빚에서 빛으로' 바꿔낸 그 모든 시간을!

나에게 쓰는 편지

26살의 내가 36살의 나에게

지혜지 | 강원도 속초시 온정로

라디오를 듣고 있던 중 '나에게 쓰는 편지'를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에게 쓰는 편지라…. 마침 제가 26살 때 10년의 후 나는 무얼 하고 있을까 생각하며 적은 편지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0년 8월 30일 월요일 비가 조금씩 내리는 새벽 3시

혜지에게

막상 쓰려고 하니 약간 부끄럽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그 전날이야.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쓰려고 하니 무슨 말부터 써야 할까. 지난 25년 동안 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히 살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닌 거 같아. 다른 친구들처럼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지금 더 만족스러운 모습의 내가 되지

않았을까?

예전에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 '루푸스'라는 친구를 사귀게 될 줄. 아마 너도 당연히 몰랐겠지. 루푸스라는 녀석은 아주 아주 나쁜 녀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녀석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 너도 알고 있지? 이 친구는 가끔 나를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해. 내가 아플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이 나를 정말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한단다. 너도 알고 있겠지만 내 몸이 말썽을 피우면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사랑하는 언니와 동생이 너무너무 힘들어해. 지금도 손가락이 말썽이야. 항생제를 먹어도 낫지 않으면 난 또 집을 떠나야 해. 입원 치료를 해야 하니까.

밤마다 기도했어. 제발 집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밤마다 울었어. 제발 이 악몽 같은 생활이 끝나기를. 그리고 밤마다 생각했어. 나, 지혜지가 사라져버린다면 모두가 편해질까? 아마 바보 같은 생각이겠지?

중학교 때 일기장을 봤어. 26살이 되면 읽어보라고 혜지 네가 빨간색 펜으로 써두었더구나. 잊고 있었어. 네가 그렇게 나에게 편지 썼다는 것을. 그때는 아주 순수했고 무얼 하든 즐거웠고 긍정적인 마음과 밝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 그리워.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혜지야, 예전처럼 당당하고 밝은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할 수 있지? 어두운 마음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루푸스라는 친구와 평생 함께해야 한다면 그 친구가 좋든 싫든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야. 할 수 있지? 그럼 난 이만 여행 가야겠어. 꿈나라로.

2010년 8월 30일 새벽 3시 34분

- 26살의 혜지가 36살의 혜지에게 -



[PS] 혜지, 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16살의 혜지는 26살의 혜지가 멋진 작가가 되어 있길 바랐는데 지금의 너는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구나. 지금의 혜지가 너무 궁금해. 무엇을 하든 혜지 파이팅이야!

지금 저는 38살입니다. 문득 이 편지가 생각나서 적어보았는데 편지를 읽어보니 새벽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네요. 이 당시 저는 루푸스라는 자가면역질환을 처음 알게 되었고 입원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루푸스라는 친구와 함께하지만 20대 때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10년 후의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며 편지 쓰기를 했어요. 10년 후 읽어 보면 그때의 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하는 생각에 편지를 읽는 내내 웃음이 난답니다. 48살의 저는 또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글을 마칩니다.

나에게 쓰는 편지

상인 일기

박매선 | 충남 아산시 어의정로

나는 상인이다.

〈상인은 메뚜기의 이마에 앉아서라도 전을 펴야 한다. 강물이라도 잡히고 달빛이라도 베어 팔아야 한다.〉

김연대 시인의 '상인 일기'의 일부다. 나는 이 시를 좋아한다. 쉬는 날도 없이 동이 트면 사무실 문을 열고 어둠이 내리면 사무실 문을 닫는다.

내 나이 50대 초반. 11년 다녔던 회사에서 전 직원에게 일괄사표를 요구했다. 난 백수가 되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며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나이가 많아선지 되지 않았다. 지구 밖으로 내동댕이쳐진 느낌이었다. 뭔가를 해야겠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겠다고 했지만 식구들은 말렸다. 시험이 어렵다고 했고 공부하고 담을 쌓고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떨어질 거라고 했다. 남편은 헛돈만 쓰고 포기할 거라고 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내가 고지식하고 숫기가 없어서 장롱면허가 될 게 뻔하다고 했다. 난 반대하는 그네들에게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그때 나를 욕하고 탓하라 하고 학원에 등록했다.

민법 시간.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설명하는 교수님의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오전 수업에 이해를 못 한 과목은 야간 수업에 또 들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도서관에서 밤 12시까지 공부했다. 요약집을 달달 외웠어도 모의고사를 보면 민법 공법 공시법 세법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생각이 나지 않았다.

15회 시험은 사시나 감정평가보다도 더 어려웠다. 전국에서 응시자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무효를 주장했다. 난 떨어졌지만 전혀 창피하지 않았다. 학원에서도 합격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졌다.

난 16회 추가 시험에서도 떨어졌다. 1차 과목에 합격하고 2차 과목에서 떨어지면 다음 해에는 2차 과목만 볼 수 있다. 다음 해에 2차가 떨어지면 그다음 해에는 1차, 2차를 다시 해야 했다. 그런 시험을 한두 개 차이로 17회에 떨어지고 18회 또 떨어졌다. 그리고 19회에 시험에 합격했다. 그런 나에게 사람들은 말하곤 한다.

"그 시험을 4년씩이나 했어? 아주 고시 공부를 했군."

그러면 나는 말한다.

"한 번 도전해 보슈. 당신은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지?"

그렇게 소상공인이 된 지 10년. 코로나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기하고 살균 소독 스프레이 뿌리고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손님을 기다리지만 거리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계약을 한 건도 하지 못한 달도 있었다. 동네엔 부동산 사무실이 많아져서 경쟁도 심해졌다.



서울에 있는 몇 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중개하면 수수료가 대기업 연봉과 비슷하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올랐고 일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갭투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중개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 난 그들이 부러웠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1차 10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기뻤지만 신청을 하고 떨리는 손끝으로 자판을 눌렀을 때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문자가 떴다. 다시 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2차 지원금 30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도 난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차 지원금 60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도 기대했지만 난 '대상자가 아닙니다' 통보를 받아야만 했다.

2020년 부가가치 신고액이 2019년보다 60만 원 많아서 안 됐고, 2021년에는 80만 원 더 신고했다고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사무실 문을 열고 월세 계약서 한두 건이라도 더 하려 노력했고 현금영수증 발행했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나에게 화가 났다. 주변에서 지원금을 몇백만 원씩 받았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몸과 마음이 황폐해졌고 우울증까지 생겼다.

노란 장미꽃이 피어 있는 성당 마당에서 화가 난 내 마음을 들으신 수녀님께서 "마음에 평화를 가지시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말씀해주셔서 억울했던 나의 마음은 평화로워졌다. 손실보상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화가 난 내 마음은 욕심이었다.

집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세입자를 설득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년도보다 조금 더한 나. 이제는 나의 그런 노력과 인내를 칭찬한다.

"넌 참 잘했어."

〈상인은 오직 팔아야만 하는 사람 / 팔아서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 사람 / 그러지 못하면 가게 문에다 / 묘지라고 써 붙여야 한다.〉

'상인 일기'의 마지막 연을 소리 내어 읽어 본다.

사무실만 지키던 나는 사무실 문에 '외출 중' 팻말을 내걸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필라테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컴퓨터를 배우고 산책하는 앱을 휴대폰에 깔고 석양에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 만보 걷기를 한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분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코로나 시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사무실 문을 닫지 않고 상인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참 잘했어요" 엄지 척을 한다.

나에게 쓰는 편지

지영아, 더 행복해지자

임지영 |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내 고향 강원도 태백. 아빠는 탄광촌의 광부. 40년 전까지만 해도 광부 하면 돈도 많이 벌고 괜찮은 직업이었지. 우리 아빠는 엄청 자상하고 최고의 아빠였어. 나는 아빠에게 애교 부리는 예쁜 둘째 딸이었는데 이건 초등학교 3학년 때 강원도에서 서울로 전학 오고 난 이후로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냥 나의 좋았던 기억은 서울로 전학 오기 전까지였고 아빠랑 떨어져 산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힘들었어.

여름, 겨울방학 때면 짐 바리바리 싸 들고 통일호 기차를 타고 아빠를 보러 갔었던 그 기억과 아빠가 회사 끝나고 와서 우리 사남매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셨던 기억 그리고 개학 전날 기찻길에서 아빠랑 헤어지기 싫어 울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

아빤 냄비에 차가운 밥을 넣고 숭늉을 끓여 김치 하나로 한 끼를 때우며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그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어린 시절의 나는 그런 것도 모른 채 그냥 아빠가 좋았고 그때는 아빠가 부자인 줄 알았지 뭐야. 탄광 공판장에서 아빠 월급날이면 라면, 짜장면, 두유 한 박스 그리고 최고의 간식 초코빵을 한 박스씩 들고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갔었잖아. 그게 다 공짜인 줄 알았는데 그걸 아빠 월급에서 깎는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지 뭐야. 하긴 그 어린 나이에 뭘 알았겠어.

내 생애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기억은 아빠와 함께했던 방학 때의 기억뿐 그다음은 별로인 기억들만 있었지 뭐야. 그 기억은 생각도 하기 싫으니 생각하지 말자.

엄마는 외로움을 빌어 아빠 아닌 남자를 알게 되었고 남들이 얘기하는 타락을 하였고 사남매 중 특히 가운데 두 딸을 방치했지. 그 와중에도 우리 언니는 엄마의 스트레스를 방패 삼아 치마 교복을 입음에도 종아리는 항상 회초리 자국이 있었고, 그렇지만 언니는 바르게 컸지.

나는 중학생 시절 방황하여 결국 타락하던 중, 고등학교 배정을 하는데 담임 샘이 어느 학교 가고 싶냐고 물었고 난 당연히 친구들과 같은 학교 간다고 했는데 그때 날 잡아주셨던 담임 샘의 말.

"너 쟤네랑 가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단호하게 얘기하셔서 얼떨결에 "네~"하고 다른 학교를 지원하였고 얼마 후 친구 한 명 자퇴, 또 한 친구는 1년 정도 후 자퇴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중학교 친구들과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나곤 했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듯 친구들과의 거리도 멀어졌고 아예 연락 두절되었지. 귀밑 3센티미터 머리, 교복 치마는 무릎 밑, 앞머리는 눈썹 위의 평범한 고등학생이 되어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생활을 했고 상업고등학교였기에 고3이 되자마자 조기 취업을 나갈 수 있었어.

처음으로 면접 본 회사 1차 서류합격 후 2차에서 탈락. 그 후로 채용 공고 들어온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교복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 보신 부사장님의 인상이 너무 좋았잖아. 2주 후부터 출근하여 그때부터 시작된 나의 첫 직장생활. 그때부터 나는 나이는 어리지만 돈도 벌었고 새내기 직장인이 되었고 그 삶이 너무 좋았는데 다 좋을 수는 없듯이 친절한 직원들도 있었지만 성질 고약한 직원 때문에 울던 적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

그런 세월이 어느덧 흘러 올해로 입사 20주년이 되었고 직원들이 언니 오빠 같고 친구 같고 동생 같고 직원들 가족들끼리도 만나기도 하잖아. 정말이지 그동안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100번 아니 200번도 더했지만 지금은 불경기에 어려운 우리 회사가 잘 견디고 번창해서 입사 30주년이 되길 기도해야겠어.

평탄치만은 않았던 나의 삶이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날 좋아하는 직원들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도 있고 지금의 행복이 쭉 갔으면 좋겠어.

너 이제껏 잘살았다고 앞으로 더 잘살 거라고 너의 앞날에 툭 하니 말 한마디 던져보자. 그리고 한마디 더 해볼까. 너의 앞날은 앞으로 다행다복(多幸多福) 하자. 지영아,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정말 늦었지만 전하지 못했던 말도 전해보자.

중3 때 담임 이경희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아빠가 제가 잘해드리기도 전에 돌아가셔서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아빠, 하늘나라에서 저 잘 지켜봐 주세요. 아빠, 정말 많이 사랑해. 진짜 진짜 아빠 보고 싶다.

나에게 쓰는 편지

그때 기억나?

박소영 | 경북 구미시 형곡로길

소영아, 그때 기억나? 나 8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서 언니랑 동생이랑 보육원에서 살던 그때 말이야. 교실 문 앞에서 동생이 수업 마치기를 기다리는데 남자애 두 명이 날 놀렸잖아. 고릴라라고. 그때까지 난 내가 그런 놀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도 못 하고 살았나 봐. 그날도 팔이 다 보이는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갔으니까 말이야. 남들과 조금 다르게 내 몸에 혹이 많고 털이 많아도 나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나에게 무슨 병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아팠던 것 같아.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고 무정한 줄도 몰랐고 내 병명이 '신경섬유종'이라는 것도 중학생이 되어서야 알았지.

그날 남자애들이 '고릴라'라고 놀리는 말을 듣고 바로 주저앉아서 쭈그린 무릎 속에 얼굴을 파묻었는데 내가 우는 소릴 듣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더 얼굴을 못 들겠더라.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내 얼굴을 보여주기가 싫기도 했지만 그보다 날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수군거리는 소리에 더 아팠고 숨고 싶었어. 남자애들은 까맣고 털이 많은 내 왼팔을 좌우로 몸을 흔들어대며 계속 놀려댔는데 사람들은 울고 있는 나, 날 놀리고 있던 그 아이들이 아니라 나의 왼팔만 쳐다보고 있더라. 마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나를 구경하는 느낌이었달까?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나는 여름에도 항상 긴 외투를 걸치고 다녔어. 사람들은 그런 날 보고 물어. 덥지 않냐고. 그럼 난 괜찮다고, 늘 덥지 않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안 더워? 여름인데.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내 이마에선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지.

그런데도 나는 긴 외투를 포기 못 하겠더라. 사람들의 시선, 행동, 말 모든 게 무섭기만 하거든. 외투가 있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외투가 날 지켜주는 보호막 같고 목숨 같아.

지금 생각하면 나 정말 되게 힘들게 살았다. 너무 불쌍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론 지금까지 잘 싸우고 버텨준 나에게 고마워. 대견하기도 하고. 근데 과연 내가 '대견한 존재'여도 되는 걸까? 나는 여전히 지난 상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말이야. 지금도 그날의 일이 선명하게 기억나서 이렇게 힘든데 말이야.

그들이 놀렸던 상처가 그만큼 컸던 걸까? 그 상처는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내 삶의 무게일까? 아이였던 나도 잘 몰랐지만 지금의 나도 여전히 모르겠다. 근데 누군가는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제 그만 아파해도 된다고. 그 상처에서 오래 머물렀으니 이젠 놓아줘도 된다고.

나에게 쓰는 편지

어느덧 마흔

임정현 | 울산광역시 동구 월봉로

어느덧 마흔이 된 나에게.

스무 살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두 번째 스무 살이네.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한 내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기숙사 앞에서 엄마와 헤어지면서 펑펑 울었는데 룸메이트들을 만나면서 거짓말처럼 싹 잊고 바로 적응했지. 집으로 돌아간 엄마는 내 걱정에 눈물을 흘리신 것도 모르고 말이야.

02학번으로 입학해서 원소기호 오투(O2)라고 '산소 학번 새내기' 소리 들으며 동기, 선배들과 잔디밭에 새긴 추억들. 가끔은 축제와 동아리 활동들이 그리워서 꿈속에서 20대의 나를 만나곤 해.

물론 좋았던 기억들이 많지만 때로는 많은 과제 속에서 지쳐서 울기도 하고 '내가 공대에 왜 온 거지?' 자책하며 힘들어했던 순간들도 하나하나 기억 속에 다 자리 잡고 있어.

돌이켜보면 20대가 내가 나를 가장 꽃 피운 순간들이 아니었나 싶어. 그때는 밝고 당찬 나였던 것 같아.

서른이 되면서 결혼했고 그러면서 나의 30대가 시작되었지.

한 번의 계류유산에 슬퍼서 울었고, 다시 찾아온 임신 소식에 날아갈 듯 좋았고, 우리 첫아이가 미숙아로 갑자기 태어나는 바람에 놀람과 걱정과 기쁨이 동시에 찾아왔지.

그렇게 2013년에는 딸을, 2015년에는 아들을 낳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

엄마가 처음인 나는 모든 게 어설펐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 못지않다고 생각해. 미숙아로 태어난 첫째가 건강히 자라주기를 애쓰며 바랬고 태어나서부터 1년 내내 먹고 토하기를 반복한 우리 둘째가 소화력이 좋아지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바랐어.

부족하지만 좋은 엄마가 되어주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장난꾸러기 남매는 내 마음을 알까?

작년 초 30대의 마지막에 나는 나의 40대를 준비하기로 했어. 30대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집중했다면 이제는 나의 미래를 준비하기로 했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하고 나 자신에게 수없이 묻고 또 물었어. 그리고 결정했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기로.

그래서 3월부터 자격증 준비에 들어가 필기시험 합격하고 바로 실기를 준비했어. 물론 실기가 만만치 않아서 한 번 좌절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한 노력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이 내 두 손에 와 주었지.

나는 더 배우기로 했어. 내 목표는 작은 꽃가게를 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수업을 하는 거야. 다행히 운 좋게도 꽃집에서 아르바이트할 기회가 왔고 강의하는 선생님의 보조강사로 참여하는 기회도 있었고 배우고 또 배웠어. 내가 꽃가게를 차리게 되면 이게 다 밑거름이 될 테니까.

2022년 드디어 40대가 시작되었어. 기분이 이상하더군. 30대의 시작과는 또 다른 처음 느껴본 기분. 내가 마흔이라니 실화인가 싶더라. "아직 마음은 20대인 것 같은데…" 하시던 어른들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아.

생각에 깊이 빠져들 틈도 없이 올해 초에는 남편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온 가족이 긴장했고 둘째 아이가 입학하면서 상반기를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 내가 그토록 차리고 싶은 꽃가게를 차릴 기회가 왔으니까.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오가면서 걱정되지만 마음 굳게 다지려고!

내가 좋아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앞만 보면서 힘내서 달려갈 거야. 40대의 나에게 '할 수 있다'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응원해주고 싶어.

"정현아! 그동안의 너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또 응원해."

나에게 쓰는 편지

나를 사랑하며 살리라

애청자

석 달의 병가 후 나는 2주 전에 복직했다. 복직 첫날 회사 동료들은 "몸은 좀 괜찮아요?" 물으면서도 나와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다. 힘든 일을 겪고 온 동료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나 또한 애써 밝은 척하기도 그렇다고 힘든 내색하기도 뭐해서 "네~ 건강해졌어요" 대답하고 말았다.

석 달 전, 나는 세 번째 아기를 떠나보냈다. 임신 9주에 갑자기 심장이 멈춘 첫 번째 아기, 아기집만 보여준 후 심장 소리조차 들려주지 않고 떠난 두 번째 아기를 보내며 나는 이제 아기를 갖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입에는 쪽쪽이를 물고 손에는 손 싸개를 하고 팔을 휘두르는 신생아들을 볼 때면 '나도 아기를 갖고 싶다, 나도 저런 귀여운 아기를 키우며 부모의 기쁨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남편과 긴 고민과 대화 끝에 우린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기를 갖기로 했다. 직장생활을 하며 주변에 알리지 않고 시험관 시술받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매일 시간 맞춰 약을 먹고 주사를 놓았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서인지 나는 아기를 갖게 되었다. 아기의 힘찬 심장 소리를 듣고 나서도 최대한 몸을 조심했다. 지난 상처 때문에 부모님께는 임신 사실을 아직 알리지 않았지만 직장에는 알려야 했다. 직장에서는 많은 축하를 해주며 임신 기간 동안 최대한 편한 업무를 하고 조기 퇴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시간이 흘러 의사 선생님은 이제 유산 확률은 제법 낮아졌다고 말씀해주셨다. 나는 설레는 맘으로 태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찾아보며 입덧하는 시간까지도 행복하게 지냈다. 너무 행복해해서 신이 질투했던 것일까. 아기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겠다며 기대하고 병원을 방문한 날 의사 선생님께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다. 아기의 심장이 멈춘 지 일주일이 지났으니 오늘 당장 수술하자는 것이었다. 아무런 징조도 없었기에 그래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기에 나는 그냥 멍하니 있다가 남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아기를 갖는 일은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지만 내 몸에서 아기의 흔적을 지우는 일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대신 마음을 치유하는 일은 참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나는 내가 겪은 일들에 대한 상처를 앞으로 30년 아니 40년 이상 가지고 갈지도 모르겠다. 나는 애써 괜찮은 척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다. 내 인생에 아기가 다시 찾아올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일에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는 일에 내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일에 내 삶을 쏟으며 그렇게 살 것이다. 나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간다.



17년간 준비했기에 가능했던 빛나는 공연 : TAK SHOW 후기

서경석 | 여성시대 진행자

매달 한 편의 에세이를 월간 여성시대에 실어야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20년 넘게 진행하신 양희은 누님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나도 7년을 넘기다 보니 글의 소재를 찾기가 만만치 않다. 웬만한 얘기는 다 한 듯한 느낌. 그런데 이번엔 일찌감치 이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마음이 '탁' 들었다. 오랜만에 정말 괜찮은 공연을 보고 난 후.

한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말로 격려를 한다.

"기회는 준비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야. 조금 더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힘내자!"

참 좋은 말이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실상은 적당한 위로의 말이 생각나진 않고 뭔가 얘기는 해야겠기에 으레껏 건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최근 이 말이 만고불변의 진리임을 깨닫게 해준 일이 있었다. 지난 7월 중순 아끼는 동생에게서 톡이 도착했다.

경석이 형~~♡

바쁘실까 하여 톡으로 보내는 점 이해해주십시오! 감사한 많은 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형은 꼭 초대하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저에겐 나름 의미 있는 첫 콘서트에 모시고 싶어서요^^ 7월 29일~31일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가능하신 요일이 있다면 말씀주시어 제가 꼭 감사한 마음 전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고생하십시오♡

영탁의 문자였다. 참 고마웠다. 딱히 해준 것 없는 나를 첫 콘서트에 초대해준 그의 진심이 느껴져 뭉클했다.

주말엔 일정이 빡빡했고 이왕이면 1회의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 29일 콘서트에 가기로 결정했다. 소문난 빵 맛집에서 탁이랑 스탭프들 먹을 쿠키를 사가지고 일찌감치 서둘렀지만, 금요일인데다 휴가 시작까지 겹쳐 콘서트가 시작할 때쯤 도착했다.

넓은 경기장에 관객이 꽉 차 있고, 저 멀리 노래하고 있는 탁이가 보였다. 워낙 큰 공연장이어서 객석 쪽으로 오지 않는 한 실제 모습을 자세히 볼 순 없었다. 하지만, 대형 전광판이 여러 개 있어서 그의 표정, 손짓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내 눈 안으로 들어왔고, 고성능 마이크를 타고 그의 숨소리까지 내 귀에 전달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두 시간 넘게 오롯이 '탁쇼' 안으로 빠져들었다. 정말 최고였다. 코로나 때문에 근 4년 만에 보는 공연이라서가 아니었다. 앞으로도 여러 지역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자세한 내용을 얘기할 순 없지만, 양희은 콘서트 이후 이렇게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공연은 정말이지 처음이었다.

17년 전부터 가수 생활을 시작한 그. 자신을 찾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얼마나 다양한 무대를 경험했을까? 이렇다 할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시간이 흐를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 일정이 없을 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이야기 나누며 소주잔을 기울였을까? 노래만 부르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작곡에 작사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

그런 영탁의 무대이다 보니 재미없을 수 없고, 지루할 리 만무하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두 시간이 넘는 공연을 중간 진행자나 게스트 없이 오롯이 그 혼자서 이끌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7년 동안 준비했던 음악, 언변, 성대모사, 모창, 댄스 그리고 삶과 사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존경하는 동생이 한 명 늘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의미가 있다"는 말은 그의 노랫말처럼 찐, 찐, '찐'이었다.

은행이 전통시장 디자인을 한다구요?

IBK희망디자인 프로젝트 _ 전통시장

달라진 입구며 간판 때문에 시장이 다시 북적이니까
처음 장사하던 때처럼 신이 난다는 사장님
IBK기업은행이 전통시장 디자인으로
사장님들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IBK희망디자인 프로젝트 _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들의 간판과 차광막, 로고 등을 디자인하고 설치하여 골목상권의 환경을 재정비해 주는 사회공헌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 총 260여 개의 소상공인 터전과 함께했으며, 2021년에는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디자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